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흐르며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은 바뀌어도 진리는 불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변함없이 지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모든 크리스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2월 13일 (토) 제 151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대안 교회 건축 선호가 한몫

WSJ 보도, 2014년 미국 교회건설 최저수준...2002년보다 80% 하락

미국인들이 예전만큼 교회를 짓지 않고 있다. 미국종교건축이 1967년 민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닷지데이터 앤 애널리틱스(Dodg Data & Analytics)에 따르면 종교단체들은 올해 95만7,000㎡ 넓이의 건축물을 지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에 비해 6% 줄었으며 정점을 찍었던 2002년보다 무려 80% 떨어졌다. 상무부 수치에 따르면 달러 기준으로 종교건축물 건설지출은 지난해 3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종교 기관들이 불경기 동안 미뤄던 개조 및 확장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건설은 이번 경기침체 훨씬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하락세에는 여러 가지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활동 참여율 하락, 기부 습관의 변화, 대규모 교회 건설의 감소, 대안적 종교건축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Decline in Church-Building Reflects Changed Tastes and Times: Megachurches Fall Out of Favor and Donation Habits Shift; Worshiping in a Former Shoe Factory).

간 종교 단체가 받은 기부액은 별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1990년에 모든 자산 기부의 절반을 가져가던 종교 단체들이 기부 습관이 변화하면서 이제 3분의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 든 교회 신도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해 헌금을 내지만 젊은 신도들은 교회를 "기부할 수 있는 여러 장소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교회 모금 캠페인 전문가 조엘 미켈은 말한다.

그 결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일부 교회는 신도가 줄면서 덜 비싼 지역으로 축소 이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자금이 충분한 교회도 스테인드글라스와 긴 나무 의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3,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내셔널커뮤니티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미리 녹화한 마크 배터슨 목사의 설교를 워싱턴DC 곳곳의 7개 장소에서 스크린으로 상영한다.

배터슨 목사는 언젠가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거나 공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는 "건물이 전부인 교회가 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길 원한다. 때로는 건물이 그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일라 그린혼(25)은 신발 공장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애프가-테일러 목사의 교회에 다닌다. 그는 "침묵이나 긴 의자가 있는 교회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며, "하나님은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나라, 미국 치솟는 가계비로 소비 감소

WSJ, 미 노동통계국 2014 소비자 지출 자료조사 결과 밝혀

미국 중산층의 통신비 지출이 2007년 이후 급증했다. 아이폰이 등장하고 데이터 요금제가 흔해진 해다. 의료비 및 기타 필수 생활비는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소득은 지난 5년 간 제자리걸음을 거듭해 의료, 외식 등 모든 분야에서 지출이 줄고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지출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24% 증가했다. 건강보험에 드는 비용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주된 원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Basic Costs Squeeze Families: Health Care, Cellphones Eat Up Income, Leaving Less for Things Like Movies, Clothes).

중산층 소득성장은 부진, 지출은 증가

이와 동시에 집에서 먹는 식료품비, 임대료, 교육비 등 필수 비용이 증가했으며 휴대폰과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등의 통신비가 급증했다.

소득 성장이 부진한 상태에서 의료, 영화, 공연, 놀이동산 등의 재량 지출이 감소했다.

2주 간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분기별 인터뷰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 1만4,000개 가구로부터 수집한 이 데이터는 왜 그렇게 많은 유통업체들이 꾸준히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왜 가정용품 사업이 수년 간 성장을 멈추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소비자 중심의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느린 이유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의료비 상승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보험사들은 기존 질병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강보험개혁법이 실시되기 전에 일어난 현상이다. 두 규정 모두 올해 발효됐다. 가족 보험이 최고 26세의 자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 등 건강보험개혁법의 다른 부분이 끼친 영향은 불분명하다.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미국 경제의 3분의2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그 돈을 지출하는 분야는 크게 바뀌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3년 노동부의 자비 지출 데이터를 분석했다. 소득 기준으로 중간 6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의 소득은 세전 연 1만 8천 달러에서 9만5천 달러 사이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의 입지가 줄고 있다. 이 그룹의 전체 지출은 2007년부터 6년 간 2.3% 정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약 12%였다. 게다가 이 그룹의 소득은 0.5% 이하로 성장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3면으로 계속)

교회출석 하락, 헌금습관 변화, 대규모 교회건설 감소추세

롭 애프가-테일러 목사는 2011년 신발 공장을 개조해 베리타스통일그리스도교회를 세웠다. 신도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해서 이 공간을 임대할 생각이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서 지붕을 어떻게 교체할지 고민하고 싶지 않다"며, 차라리 "동네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지역과 종교에 따라 달라진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 테네시 주 녹스빌 등 활성화된 가톨릭 교구는 새 성당을 건설할 예정인 반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지의 교구는 성당을 폐쇄하거나 건물까지 내놨다.

미국 종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이슬람교도와 몰몬교도들의 수는 크게 늘었으며,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주요 기독교 교파들은 규모가 줄었다.

오랫동안 계속된 교회 건축 감소가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는 조짐들이 보인다. 올해 건설은 줄었지만 지출 속도는 2013년 말 이후 조금 늘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FMI와 닷지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모두 2015년에는 완만한 속도로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롭 애프가-테일러 목사가 2011년 신발 공장을 개조한 베리타스통일그리스도교회에서 포즈를 취했다.

하지만 2002년과 같은 건설 호황으로 돌아가기에는 장애물이 있다. 닷지는 "역사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 활동이 극히 낮은 채로 머물 것"이라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장기적 하락을 이끄는 것은 느리지만 꾸준한 종교 활동 참가율의 감소다. 시카고대학교 연구진이 실시하는 행동, 태도, 인구통계학 조사인 '일반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절대 참가하지 않는다고 말한 미국인의 비율이 1972년 9.3%에서 2012년 25.3%로 늘었다. 2012년에는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교'라고 답했다. 40년 전 같은 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5.1%였다.

모금도 문제였다. 기빙USA 재단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고려해 조정된 2013년 자산 기부액은 2001년에 비해 10% 증가했지만, 같은 기



2면

"경찰되고 싶진 않지만 경찰 없는 곳엔 살기 싫어"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크리스천 리더십
변역 및 요약 : 최운용 목사



16면

Territory Ministries 첫 번째 사역
"청년연합동계수련회" 연다

www.kapcq.org
갈멜산의 엘리야, 오페라로 만나다

퀸즈장로교회가 새롭게 연출한 '엘리아'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LIAH

Mendelssohn's A Dramatic Oratorio

일시 : 2014년 12월 14일(주일) 저녁 5시
장소 : 퀸즈장로교회 문의 : (718)886-4040

12/14
2014
Sun. 5:00pm

지휘 윤원상
출연 조형식(엘리아) 강혜영 김유경 소현화 소유영 최지혜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관현악대 바다위립팀 주일학교 유년부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 (718) 886-4040



시론

내 눈이 주를 보았도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매번 반복되는 일상... 오늘도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아빠의 퇴근길은 무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랑스러운 아들이 환한 얼굴로 아빠를 향해 달려와 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친 아빠는 아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머쓱해진 아들이 지친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를 버세요?" 아빠는 마지못해 대답해줍니다. "한 시간에 20달러를 번다." 아빠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저에게 10달러만 빌려주세요." 아빠는 돈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피곤한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아이는 그렇게 힘들고 이 방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에게 심하게 화를 낸 것이 맘에 걸리는 아빠, 아들의 방문을 살피시 열어봅니다. 미안함에 아들을 다독여 주던 아빠는 아들이 필요하던 10달러를 줍니다. 아들은 무척 기뻐하며,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을 꺼내더니 돈을 세어줍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돈이 있으면서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냐?"면서 아들에게 또 화를 냅니다. 아들은 돈이 부족했다며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빠, 이제 20달러가 있어요. 아빠의 시간을 한 시간만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은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장난감을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와 함께 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빠는 아들을 힘껏 안아줍니다. ("함께하는 사랑밭" 발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냅니다. 대강절(Advent)은 '옴',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이전 네 주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교회는 매주 한 개씩 4개의 초를 밝혀 나갑니다. Advent Candles, 대강절 초입니다. 대강절 초는 3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핑크 색깔의 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초를 켜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오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대강절은 빛의 축제요 빛의 절기입니다. 4개의 대강절 초들은 각각 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주일 초는 "희망"을, 둘째 주일 초는 "평화"를, 셋째 주일 초는 "기쁨"을, 네 번째 주일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4주에 걸친 대강절을 지난 후 마지막 초, 중앙에 있는 하얀 색깔의 초를 성탄절 예배 때 마지막으로 켜게 됩니다. 이 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Christ Candle,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이렇게 초 하나씩 밝혀나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5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설레임 가득 안고 간절히 기다린, 기다림 끝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 노인처럼 예수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만나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곳이 베들레헴 말구유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거기에 아기 예수가 계십니다. 시므온 노인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자 드린 첫 번째 경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 나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 예수!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분 예수! 바로 그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내가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꼭 보리라! 만나리라! 그 예수로 내 영혼과 육신이 치료 받아 내 영혼이 살리라! 강건케 되리라! 그 예수로 부서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리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막힌 담을 허무리라! 그 예수로 나와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케 하리라! "백문일답." 100가지를 물어봐도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뿐입니다.

우리들과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백성들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2014년도 성탄절이 되어서, 시므온 노인처럼 "내 눈으로 주를 보았도다" 선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으신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편집국장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독자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경찰되고 싶진 않지만 경찰 없는 곳에 살기 싫어"

WSJ, 국제경찰 포기 '오바마 독트린' 비판과 미국 외교정책 제시(2)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원칙에 대해 자주 거론한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사린 가스로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가자,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을 합병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에 유럽의 국경은 무력으로 수정될 수 없다"며 크렘린을 맹비난했다.

이라크 전쟁이 비극적인 이유는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체포하기 위해 장장 9개월 동안 미국인 480명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재하는 경계선을 가리킨다. 또한 러시아와 중부 유럽 자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뜻한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미국의 우방국과 인접국 사이에 존재

이른법적인 필요는 없다. 1994년 르완다에 인종 학살이 벌어졌을 때 순항미사일로 무신탄 한 개만 제거했다면 후투족이 투치족을 말살하라는 명령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미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고한 생명 수천 명이 희생되지 않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 다니엘 페트릭 모이니한 상원의원(뉴욕)은 1993년에 쓴 '일탈 하향(Defining Deviancy Down)'이라는 유명한 에세이에서 하루계층에 만연한 비행 때문에 기관들이 기준과 기대를 낮추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 전체가 역기능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상황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화재가 큰 불이 될지, 버려두면 알아서 꺼질지, 판단이 미 정치인의 몫 미국이 경찰역할 수행하지 않으면 불량국가들 단결해 그 빈자리 채워

제재를 부과하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전투기를 파견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의 대응에만 머물렀다.

여기에서 세계 질서의 유리창이 깨진 모습이 눈에 띈다. 바로 원칙을 들먹이던 원칙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순간, 원칙은 무시되기 시작한다. 참된 한 장이 깨지면 나머지 창문들도 다 깨지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외교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미국은 GDP의 5% 수준으로 군비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준으로 GDP의 3.5%가 국방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깨진 유리창을 외교정책에 적용한다는 것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면 공격에 가담한 주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끝장난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무기한 중둔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구체적인 처벌만 수행하는 활동이어야 한

그런데 이라크를 아랍 민주주의 국가 모델로 변모시키는 데는 8년이라는 시간과 미국인 4,000명의 희생이 더 요구됐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본보기로 삼아 처벌하는 것과 이라크를 모범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한 외교정책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피벗(pivot)'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지 그 누가 예측할 수 있던 말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누가 알았을까?

조지워싱턴 대학교의 헨리 나우 교수는 최근 시사평론지 '아메리칸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곳, 다시 말해 기존의 자유로운 사회라는 경계선 안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썼다.

이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아시아 자유 국가 사이에 존재

하는 경계선도 말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한 외교정책이 모든 악당을 축출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해외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때론 나서야 된다는 주장도 아니다. 어느 지역에 발생한 화재가 인근으로 번질 큰 불이 될 것인지 혹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꺼질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미국 정치인의 몫이다. 가령 시리아 내전은 전자에, 남수단 내전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냥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 해외 분쟁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미국인들은 비교적 질서정연한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다보니 질서유지가 저절로 되길래 하는 양 당연시하게 됐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이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외교 정책을 채택하게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고 미국 언론인들이 참수를 당하면서 미국인들은 '팩스아메리카나'의 진실을 곰곰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대) / (323) 665-9025(광고국)
Fax: (323) 665-0056(편집국) / (323) 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대포) / (718) 886-4424(편집국)
Fax: (718) 886-0074(대포)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행복한 가정, 마주앉은 식탁에서 출발

WSJ, 아침 식사시간 이용한 최적의 공감대 형성 제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창한 일에서부터가 아니라, 작고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장"과 "변화"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온 가족이 웅기종기 둘러앉아 저녁식사 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면 아침식사를 함께 하는 건 어떨까?

부모들은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가정의 자녀가 더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있으며, 성격도 더 좋고, 정신적인 문제도 덜 겪고, 행복감이 더 높다는 점을 알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는 가족 식사의 중요성을 저축하고, 가족 지원기관들은 이 같은 개념을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모들은 완벽하고 즐거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한다. 말잘 듣는 십대 자녀와 미래의 MBA급 인재를 머리속에 그리면서 말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의 이점이 저녁식사에만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No Time for Family Dinner? Try Breakfast: Pancake Consumption is Rising; Doughnut Fridays).

그렇다면 아침 시간을 단 몇 분 간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대감을 키울 또 다른 기회로 삼아 볼 것을 제안한다. 출근 또는 등교 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또 그녀와 남편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나누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조사 업체 'NPD그룹'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평균 기준으로 1년에 250일 정도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년 전의 196일보다 늘어났다. 주말에도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빈도가 증가했다.

저녁식사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강조하는 문화에서 벗어나는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아동의 저녁식사는 식사 그 자체보다는 함께하는 일정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족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주 코넬대 부교수는 언급했다. 그녀는 가족식사가 십대 자녀의 행복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대규모 연구 2건의 공동 저자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족 구성원이 집에 같이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아동 집중력 향상, 성인인 올바른 식습관 유지 도움

집에 같이 있는 드문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세 자녀를 둔 에리카 레인은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기에는 아침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저녁에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겠지만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침이면 에리카는 활기를 되찾는다. 각각 6살, 4살, 1살인 자녀들

아침식사는 학교에서 아동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인의 경우에는 보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호평 받고 있다.

아침식사를 이동 중에 섭취하는 음식으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는 대형 식품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셰이크, 식사대용 바, 아침용 샌드위치가

양부모 가정, 유대감이 강한 가족 등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저녁식사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연관성은 앞서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 보인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무지크 부교수는 식사가 가족 사이에서 정감과 가족 전통을 쌓아 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면서, "저

녁식사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시간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데본 쿠시맨과 그녀의 아홉 살 난 아들에게 '도넛 먹는 금요일'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아침식사 전통이 됐다. 매주 금요일마다 데본은 평상시보다 15분 빠른 6시에 아들을 깨워 던킨도너츠나 스타벅스에 데리고 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시킨다고 말했다.

"꼭 거창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별이 부모인데다가 바쁜 나날을 보내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모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좋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모닝커피를 마시는 동안 몇 분간 시간을 내서 자녀와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식사의 가치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가족과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비만율과 과체중 비율이 더 낮았다. 이들은 또 과일, 미정제 곡물, 섬유질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힘은 모으고 아픔은 나누고

디랙 초프라 박사는 "더 짧게 오래 사는 법"이라는 저서 머리말에서 "인간의 신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 기계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활발하게 바뀌는 에너지, 정보,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구성체로서 완전하게 변화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심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기능적 나이)와 연대기적 나이는 같지 않다고 했다.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다. 나이는 많지만 비전과 용기, 패기와 기상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초점을 잃은 젊은이들도 있다. 체력이나 완력은 젊은이들을 당할 수 없다. 그러나 힘이란 반드시 근력이나 완력만은 아니다. 체력보다 강한 것이 정신력이고 정신력보다 더 센 것은 영적인 힘이다.

모든 힘에는 변치 않는 원리가 있다. 그것은 모으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모래알 하나는 작다. 그러나 수많은 모래알을 한데 모으면 산이 된다. 물방울 하나는 작다. 그러나 모여 흐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1분을 60개 모으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을 24개 모으면 하루가 된다. 문제는 모으는 일이 서툴고 익숙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과장 한 사람이 일본에 상담을 위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상대방 회사가 긴장을 한다고 한다. 이유는 김 과장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과장을 포함한 세 사람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상대가 마음을 놓는다고 한다. 이유는 일본에 도착하기 전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합하고 모으는 일에 서툰 우리를 탓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귀담아들어야 할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갈등으로 증폭된 와해와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새해가 되었지만 서광도 여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환 위기 때 보였던 힘 모으기가 다시 시작된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 힘 모으기는 우리의 힘 모으기였고 사랑 모으기였고 믿음 모으기였다. 힘은 모을수록 강해지고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우리 시대는 곧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아픔이란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아픔은 누구에게나 털어놓고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버림받은 아픔, 실직의 고통, 실재로 인한 좌절들을 견디지 못해 최악의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 말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나누고 껴안는 일이 그리스전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다.

지진과 해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린다. 결코 남의 일이어도 안되고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 결코 남의 일이어도 안되고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 수천만 개의 병원이 있어도 다 치유하기 힘든 아픔으로 우리 시대는 신음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간헐적 때 돌아보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힘을 모으는 것은 필요할 때 뜻있는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이다. 힘은 모으고 아픔은 나뉘야 한다. 한국 교회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통증클리닉이 되어야 한다. 통증클리닉이 통증 원인을 제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1면에서 계속) 윌스트리트저널의 분석 결과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 이 가구, 엔터테인먼트, 의료, 심지어 보육에 지출하는 돈이 감소했다.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는 2007년과 2013년 사이 21% 증가했다. 카이저 가족재단 자료에서는 직원들이 가족을 포함하는 직장 건강보험에 월 평균 38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비해 39%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전체 의료비 지출은 완만한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미국 가정의 의료비 지출이 약간 감소할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료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케이

드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휴대폰 서비스 관련 지출은 2007년 이후 거의 50% 급증했다. 아이폰이 등장하고 데이터 요금제가 흔해진 해다.

이와 비슷하게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지출도 8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이 비용은 중산층 가구 지출액의 약 0.8%를 차지했다. 6년 전에는 0.4%였다. 케이블 TV를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및 위성 TV에 대한 지출액은 2007년보다 24% 늘었다.

주택 관련 지출은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는 주택 구매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춘다. 주택 소유의 감소와 저금리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부 가구

가 집을 잃고 아파트 수요 상승으로 월세가 오르면서 임대료 지출이 26% 증가했다.

외식비는 약간 감소했으며 집에서 먹는 식사비용이 12.5% 증가했다.

미국 중산층은 가능한 곳에서 비용을 줄였다. 행사 입장료 지출은 16.5% 줄었으며 보트, 캠핑카, 카메라, 파티 대여 등을 포함하는 카테고리 지출액은 31% 감소했다.

육식 및 침실 리넨 제품을 포함한 가정용 직물 제품에 대한 지출은 26.5% 감소했다. 자녀 양육 및 노인 보호 관련 지출은 25%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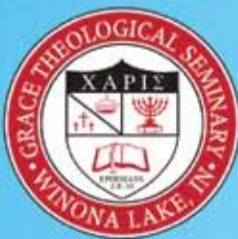
식비, 주거비, 의료비가 모두 함께 미국 중산층 소비자 지출의 약 56%를 차지했다. 19%를 차지한 교통비는 같은 기간 동안 대체로 변화 없었다. 자동차 대출 금리와

새 차 구매에 대해서는 지출이 줄었지만 연료비는 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요인이 한 카테고리 안에서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지출이 6.5% 감소한 것은 소비자들 이 새 차 구입을 미뤘거나 더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옮겨갔거나 중고차 구입이 늘어나는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전체적으로는 11.5%, 16세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는 18% 감소한 의료 지출액의 경우, 옷을 덜 구매하거나 더 저렴한 옷을 사는 현상과 더불어 소매업체들의 할인 경쟁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출은 2007년 이후 11% 증가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불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우리 되기

다운타운에서 액자 프레임을 제작하여 판매하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다운타운 특정 다 인종의 고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에 한 흑인 고객이 상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유독이 검은 고객을 향해 "그 녀석 되게 캄하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순간에 나온 말이라 장로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당황하게 하는 것은 그 고객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너무 캄해서 미안합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민망해서 말을 못 열고 있는 그에게 자신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였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한인들에 대한 좋은 추억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 장로님은 흑인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평소와는 달리 피부색에 대

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을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갖게 된 것은 초기 아프리카에서 잡혀와 노예가 된 그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인종차별정책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들은 짐승과 동등하다고 하는 사회 인식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흑인은 짐승과 인간 사이에서 나온 개체이며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흑인의 피부색이 검은 것은 열등한 개체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며 마지막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서 흑인 노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차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자유를 갖기 위해 찾아온 새로운 땅에서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흑인들을 비롯해 유색인종까지 확대하고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노예제도의 폐지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운동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시시각각으로 문제화 되는 인종차별 문제로 아직도 이 미국 땅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흑인 대통령까지 둔 미국에서 아직도 갈등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한인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일명 '로드니 킹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폭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55명, 부상자 2383명, 체포된 사람은 13,77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폭동의 원인은 관계없는 한인들이 애써 이룩한 삶의 기반을 잃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주리 주 퍼거슨 사태로 인해 시작된 갈등은 또 다시 제2의 LA폭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로 인해 과잉 진압을 당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한 갈등

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하는 흑인들이 생기고보니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여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성경공부 시간에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성경공부 교제내용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내용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퍼거슨 사태나 백인 경찰이 어린 흑인 아이를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막상 흑인을 만나면 머뭇거리게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전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웬지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것은 아직도 마음에 수용할 수 없음과 타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초라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

니다. 주인공인 '장그래'는 어려서부터 바둑기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둑이라는 갇혀있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지 못했던 '장그래'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라는 울타리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신입사원들과 간부직원이 직장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말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흑인을 보자 그들을 폄하하는 말을 했던 장로님과 다를 것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의 대가로 얻은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던 통합적 의미는 백인과 흑인, 유색인종이 서로 '우리'되는 것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서로 공유하며 때로는 지지고 부는 마찰이 있을지라도 한 하늘아래서 살아가는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였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바로 먼저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럼 두려워 말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흑여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 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

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탄이 무엇입니까? 여기 허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좌웨'라는 단어로, 이것은 '거짓되고 무가치한

자 하는 마음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어떤 것에 대해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처지와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큰 예식을 원하고, 큰 집을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하며, 비싼 옷과 고급 레스토랑만을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허영심임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러나 허탄한 마음은 쓸데없는 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쓸데없는 걱정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했습니다. '제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을 보면 대개가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채로운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부요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아무리 물질이 축복이고,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절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또 내 신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아굴은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채워주시고 더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 (잠 30:7-13)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개 앞을 지나가면, 그 개가 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떠는 그 진동이 개의 촉각에까지 전달이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히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마귀 앞에서 떨면, 그 마귀는 더욱 기세등등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잡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면, 사단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

스미 수없이 기록돼 있는데 365번 기록되어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체제 하에 박해를 받아 옥중에 있던 범브랜트(Richard Wurmbrand) 목사가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지를 세어보았는데, 꼭 365번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하나님은 1년 365일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머피(Murphy)라는 성경학자는 이는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이나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영심,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괜히 이루지도 못할 야망이나 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하고

서 아굴은 허탄과 거짓말을 함께 묶어 이것들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후반절로 9절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음시키고, 부하게도 마음시키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음시키고"라는 말씀을 NASB 성경은 "Give me neither poverty nor riches"라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장래문제가 열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하나님 또 그를 믿는 신앙생활과 바꾸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아굴은 자신의 주변에서 어리석게도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으려 할까요? 본문이 제시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은 바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면서, 나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하여 몸을 씻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면으로 계속)



KIM Mission -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

KIM Ministry Mentors

 강동찬 목사 (NJC메리니교회)	 김은한 목사 (미육군군목, 대령)	 김승년 목사 (해운대천안교회)	 강덕광 목사 (TN 생명교회)	 박명애 목사 (CA NewLifeMission)	 손선식 목사 (SD 삼일교회)	 김공식 목사 (상백울영광교회)	 전광성 목사 (KNZ중앙교회)
대표	이사장	전임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배남기 선교사 (미육군군목)	 임인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최도민 박사 (지리산, 말라스)	 강태원 장로 (비즈니스, NJ)	 송하광 장로 (비즈니스, MD)	 이지홍 대표 (사령관, NY)	 황규집 박사 (비즈니스, NY)	 송동우 박사 (비즈니스, NJ)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정경복 박사 (VMD부사령, WA)	 이광현 장로 (IC Global대표, NY)	 이원구 안수집사 (산은캐뎬, 서울)	 임재원 집사 (K&S 대표, 라오스)	 임소영 자매 (한호사, NY)	 강동철 집사 (비즈니스, AZ)	 이순권 박사 (전역역사, TX)	

KIM Mission

KIM Mission은 지난 13년간 진행 되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제2의 헌신 선교공동체입니다. 김 미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선교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며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선교현장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 미션은 헌신된 평신도 비즈니스멘 들을 주축으로 하며, 지역한인교회를 선교비전으로 이끄는 사역 멘토 목사님들의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13만명 이상이 수료한 세계적인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가운데 김 미션을 통해 13년간 45차례 한국어 세미나를 3700명 이상이 수료하였으며 (미주 32회, 선교지 13회), 약 30여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현재 텍사스 샌안토니오 Oak Hills Church (Max Lucado 목사님) 한인그룹을 대상으로 제46기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KIM Mission은 선교에 헌신된 분이라면 누구나 동참하여 평생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www.KIMMission.org참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 윌리엄 캐리 (William Carey)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사탄교의 실체를 파악하자 (생)

미국 내에서 사탄교가 자신의 정체 를 담당하게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 점점 광범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2014년 한 해 에도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 1월에, 오클라호마 주 에 사탄의 동상을 들여 놓겠다는 계획 을 밝혔지만, 다행히도 주정부로부터 강력한 거부를 당한바 있었습니다. 사탄의 모습을 염소대왕처럼 만 들어서 양옆에는 남자과 여자 어린이 들이 그 염소사탄을 동경하듯이 우리 러 보는 동상을 7ft 씩이나 크게 만들 어 오클라호마 주의 수도Capital 앞 에, 그것도 바로 십계명이 있는 곳 옆

에 성경책을 공립학교에서 배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안 사탄교에서는 자신들의 "사탄 숭배하는 잡종 및 사탄교리" 등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적은 "십계명이 잘못된 점들," 예수님 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책들을 나눠 주겠다고 나서며 학교들을 소송하게 되고, 결국 지난달 소송을 통해서 사 탄교 뿐 아니라 기독교에 관련된 책 들까지 모두 플로리다 주 공립학교에 서 나눠주지 못한다는 결정이 법정에 서 내리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 었습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뉴 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자리잡고 있는 사탄교 HQ(headquarters)에서 시행

람이 교주가 됐는데, 은 교주가 되자마자 사탄교 장소를 Hell's Kitchen Manhattan 즉, 맨해튼의 지옥의 부 역'이라고 이름을 지어 두 번째 사탄 교 HQ 장소를 옮겼습니다. 바로 지금 또 다른 최고 반기독교적인 도시라고 알려진 뉴욕입니다.

뉴욕으로 HQ를 옮겨서 새로운 교 주가 된 Peter Gilmore는 2001년 프 리섹스free sex에 대한 내용을 써서 알릴뿐 아니라 동성결혼을 최초로 지 지하는 교회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기 도 했습니다.

그후 2004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자 유과 정치인들에 의해 동성결혼이 미 국에서는 최초로 합법화된 주가 됩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즉 보복 을 하라는 세계관을 사탄교의 가치관 으로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기록하 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합니 다. 사탄숭배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 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십대들의 영웅들이 많은 가수들 중 특별히 레이디 가가 는 콘서트 때 "나와 함께 지옥에 갈사 람?" 하고 외치면 수만 명의 관중이 함께 "yes!"라고 외치곤 합니다.

사탄교는 또한 마술을 늘 포함합니 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 이고, 결국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속 이고 혼돈시키는 것을 인생사는 지혜 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들은 사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 인생의 블루오션"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블루오션을 이룰 수 있는지요?

-토랜스의 청년 David

A: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Blue ocean이다. 바다에 넓 게 펼쳐진 망망대해를 말한다. 블루오션 인생은 이전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미개척 지대를 가보는 도전을 말합니 다. 물론 거기에는 위험도 있고 실수도 있을 것이며 두려움도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길을 도전하여 그 어려운 길을 성 취하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비지니 스틱인 면에서는 한 개인의 블루오션의 생각이 신상품을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산지식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블루오션은 그리스도 안에서 꿈 갖는 것

블루오션의 인생을 살려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진 사 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 엇일까? 나는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언제 나 우리에게 가능성(Possibility)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생백 화점에서 블루오션의 꿈을 구매할 수 있다면 블루오션의 4차원 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장 로버트우드 의 꿈 은 "내 세대에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 한잔이라도 맛 보게 하는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혈관에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 라가 흐른다"고 하였다. 판자집을 지르려면 설게도 청사진이 필 요 없지만 빌딩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 인생이 빌딩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블루오션 청사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꿈입니다. 특히 내가 이루려는 야망보다 하나님이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를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고 눈이 밝고 가슴은 언제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펄떡입니다.

둘째, 주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It is possible in Christ). 광중운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을 모두 글로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바라보라.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오늘 도 그것이 가능하다. 내일도 그것이 주안에서 가능하다 라고 외 치라.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머리가 좋아 성 공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학벌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이야기 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가정 태어나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 (attitude) 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성공지향적 인 사람에게만 온다. 그리고 실패는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 체념해 버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셋째, 열정을 쏟아라.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쏟는 인생을 살라 는 것입니다.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천번 넘게 꽃을 찾다니 며 얻은 것이며 웹스터 영어사전을 편집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그 일을 했으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은 8년 동안 2천번이 나 스케치한 결과입니다.

에 놓겠다고 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 었습니다.

동상의 이름은 Baphomet(바포멧), 또는 Sabbatic Goat(사바티크 염소)라 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사 탄교에서 계속 요청했던 그 옆자리에 있던 십계명 동상에 사교가 났는데, 밤중에 어떤 큰 트럭차가 와서 십계 명을 박아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트 럭 주인은 자신이 졸다가 했다고 하 지만 올해 계속 사탄교에서 염소사 탄 동상을 놓겠다고 끈질기게 요청 한바 있기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하는 일들입니다.

미국 내의 사탄교 역사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5월 에 하버드 대학에서 Black Mass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기독교 단체들과 캐톨릭 단체들이 강력히 반 대운동을 펼쳐서 행사 바로 1시간 전 에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사탄교에서는 지난 9월 중 순 주일(Sunday)에 오클라호마 시빅 센터 앞에서 Black Mass를 거행했습 니다. 당시 Black Mass를 거행하는 자리에는 "이것이 나의 몸이요, 이것 이 나의 피다"라는 배너까지 부쳤는 데, 그날 미사에 참석한 사탄숭배자 보다 미사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지 난번에 말씀드렸던 플로리다주 오렌 지카운티에 있는 공립학교들에 쳐들 어간 사탄교의 활약입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사탄교가 정식으로 설립 된 것은 성경과 기도가 공립학교에 서 빠지고 3년 후인 1966년입니다. 1966년 4월 30일 Anton Szandor LaVey라는 사람이 Church of Satan 을 설립하면서 사탄교의 창시자가 됩 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사탄교가 생긴 장 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장 반기독 교적 가치관을 행사하는 캘리포니아 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샌프란시 스코에 있는 블랙하우스Black House 에서 Anton LaVey는 스스로 사탄교 의 가장 높은 교주(high priest)가 됐 고 1969년 사탄성경책을 정식으로 만들고 사탄교의 철학과 가치관들을 표준화 시켜버렸습니다.

Anton LaVey가 1997년에 죽자 그 의 후보자로 Peter Gilmore라는 사

다. 그리고 지금 매사추세츠는 샌프 란시스코와 뉴욕과 같이 가장 반기독 교적인 도시일 뿐 아니라 가장 공립 학교 교육이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 고 있습니다.

첫 번째 HQ인 샌프란시스코의 사 탄교 블랙하우스는 Anton LaVey의 딸인 Karla LaVey가 대를 이어 교주 가 되어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계속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어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사탄교의 가치관

사탄교의 핵심 신앙과 철학은 무신 론에 기초합니다. 그 안에 포함된 그 들의 핵심 가치관들은 첫째, 개인주의 2. 쾌락주의 3. 세속주의 4. 자기중 심주의 5. 자신을 신격화 우상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핵심 신앙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자리잡고 있 는데, 1)자연을 숭배하는 자연주의 2) 사회 진화론주의 3)Lex Talionis주의

교 의식과 의례절차 및 검은 마녀, 사 탄마녀 등의 의식들을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10계명이 있 다면 사탄교에는 11계명이 있고 9가 지의 신앙고백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탄은 이러 이러한 가치관을 대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9가지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절제가 아닌 탐닉을 추구하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존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에 관심을 두지 말라.

△사탄은 자각 있는 사람에게서 친 절해도 불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낭 비하지 않는다

△한쪽 뺨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복수해준다.

△사람은 단지 동물 중 하나일 뿐 임을 가르친다. 사람은 동물보다 잘 난 것이 없으며 동물만도 못할 때가 많다. 사탄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 든 "죄악"들을 대표한다. 죄의 달콤함 으로 모든 육적, 정신적, 심리적, 감정 적 충족을 통해 죄악들을 즐기게 한 다.

△사탄은 교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 람이 아닌 종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 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금식하며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나라 도사를 위해 기도 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 로 철저히 무장하며, 믿음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씩씩하고 담대하 게 치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월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향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월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월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공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9월 1월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 24일 블레스 샬레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11월 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톤 블레스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련 강의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월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예배(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5월 1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바전교회(오영택목사)	7월 1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아프리카의 알룬카(YALUNKA)



4개 국가에 거주하는 4개 알룬카족의 통합과일. 알룬카족은 푸타잘론(Futa Jallon 또는 Fouta Djallon)이라는 서아프리카 산악지대의 원주민 중 하나로 만딩고족(Mandingo)의 일파다. 푸타잘론은 감비아, 니제르, 세네갈 강의 발원지다. 알룬카족은 디알론케(Dialonke) 또는 잘론케(Jallonke)로도 불리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잘론(산악)의 원주민"이란 뜻이다. 18세기에 많은 알룬

카족이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종족인 풀라니족(Fulani)에 의해서 푸카잘론에서 쫓겨나 흩어졌다. 오늘날 알룬카족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주로 기니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일부는 세네갈, 말리의 남서부, 시에라리온의 북동부 지역에도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알룬카어로, 니제르-콩고어계의 만딩고어 지파에 속한다. 알룬카족은 또 다른 만딩고어인 소소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진다. 사실 알룬카족은 자신들을 소소족(Soso)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종족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알룬카 지역에는 키가 높은 풀이 있는 반면 나무는 적고, 일부 수출 지역도

있다. 또 그 지역은 언덕지역으로서 대부분이 해발 1,000-2,000피트(300-600미터)에 이른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알룬카 정착촌은 언덕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있다. 1950년대 이후, 많은 알룬카족들이 프리타운과 같은 도시로 이주해 임금노동자가 됐다. 최근에 많은 풀라니족과 만딩고족들이 알룬카 지역으로 옮겨와 다문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알룬카족은 주로 자급적 농업을 하며, 쌀과 수수 등이 주요 작물이다. 팥, 고구마, 옥수수, 콩도 재배한다. 닭, 소, 양과 염소를 기르며 이 가축들은 결혼시에 처가에 지불하는 대가(bridle-price)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가축들은 경제적 교환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우유를 얻는데 쓰인다. 가축 치기는 아이들이 하는 일이다. 여자들은 우유를 짜고 버터를

만들며 남자를 도와 농사일도 일부 한다. 꼴도 알룬카족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필수품이다. 나무에 다 커다란 물통을 걸어놓음으로써 꼴을 채집하는데, 벌은 이 물통을 벌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매년 4-6월(15-23리터)의 꼴이 하나의 물통에서 채집된다.
알룬카족은 작은 마을보다는 대규모 정착촌과 촌락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 큰 촌락들 중 다수가 18세기 이후로 아직도 그들의 현재 거주지에 남아있다. 알룬카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사회이며 가족구성원은 한 남자와 아내(들), 미혼자녀들이다. 둘 이상의 대가족(Extended households)이나 더 큰 대가족(extended family compound)을 형성하기도 한다. 알룬카족은 동근 모양의 오두막에 살며, 벽돌과 짚으로 엮은 원추 모양의 지붕이 있다. 촌락내부에는 오두막들이 광장 주변으로 집단을 이루며, 그 주변에는 울타리

가 쳐져있다.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관습이다. 이슬람법에 따라 남자는 4명의 여자까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첫 아내는 나머지 아내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다. 남편은 아내들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며, 그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필요할 때는 처가 식구들도 또한 돕는다.
신앙
알룬카족의 99%가 무슬림이다. 그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만 이슬람 이전의 신앙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니에나"(N'iena)라고 하는 "자연의 영"을 믿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제물로 바친다. 어떤 니에나는 선한 영으로서 쌀 생산과 여자의 임태를 돕지만, 어떤 것은 악령으로서 숲 속에 살며 아이들을 납치해간다고 생각한다.
알룬카족은 또한 마녀가 동물로

등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믿는다. 어떤 것은 희생자의 집에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작물을 황폐화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예언자나 주술사가 특별한 제사를 지냄으로써 농토가 가정에서 마녀와 사악한 니에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여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알룬카족은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들 가운데 현재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슬람에 대해 헌신하고 있고 박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민족들에게 진리를 수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과 보다 많은 선교적인 노력 및 추가적인 복음화 도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IS, 개종 거부 어린이 4명 침수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개종을 거부한 이라크 크리스천 어린이 4명을 침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2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성조 지성공회교회를 이끌었던 앤드류 화이트 사제의 성공회 방송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화이트 사제는 "IS가 아이들에게 마지막 개종 기회를 주었으나 거절했다"며 "아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죽어갔다"고 말했다.
사제에 따르면 IS 대원들은 1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무함마드 선지자를 따르겠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했다. 여러 아이 중 4명은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따르다"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며 개종을 거부했다. IS대원들은 거듭 "시킨 대로 말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거부했고, 곧바로 침수당했다. 화이트 사제는 "이 일에 대해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에서 기독교 등 소수 종교인에 대한 IS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개종을 강요해 거부하면 무참히 살해하고, 젊은 여성을 납치해 성노예로 팔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폭탄 테러를 위해 아이에게 마약을 먹인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 "전쟁에서 어린이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며, 이들에게 부상당한 IS 대원들을 위한 체혈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화이트 사제도 살해 위협 때문에 거처를 이스라엘로 옮겼다. 그는 "이라크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박해 '심각'

파키스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확산되고 있다. 코란을 훼손했다거나 태웠다는 이유로 구타와 살해 위

협을 하거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아시아뉴스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인들을 '신성모독' 혐의를 씌워 당국에 고발하거나 ' 명예살인' 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코란을 태웠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부부를 가마에 넣어 화형 시키기도 했다.
편자르 지방 세이쿠프라 지구에선 가정부로 일하는 28세의 임신한 기독교 여성을 버려버려 거리를 걷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무슬림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여성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여성은 정신적 충격으로 유산했다.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이 범으로 호소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무슬림 군중의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 가마에서 죽은 기독교인 부부의 가족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시달리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도 사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2010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 는 지난달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 비비는 즉시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영국매체 가디언은 "신성모독은 이슬람 국가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도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키스탄 기독교 협회(BPCA) 윌슨 코우드리 회장은 "기독교인에게 수치를 주려는 행동은 무슬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증오로 표출돼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 동맹은 살인에 대해 항의하고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소수 민족을 보호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동맹은 뉴스레터에서 " 드러나고 있는 일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파키스탄의 IS인 '다이스'(Daish)가 배후라는 소문도 있다"

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다. 1억8000만명의 인구 중 97%가 무슬림이다. 기독교인은 2.5%에 불과하다.

미교회, 퍼거슨 사태로 불신집단전략 경찰 켜안기

미국의 한 교회가 '퍼거슨 사태'로 불신 대상이 된 경찰을 켜안기에 나섰다.
메릴랜드 주 힐크레스트 하이츠의 호프아프리카인감리주요교회는 지난달 30일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서장과 경찰관을 초청해 특별 수일예배를 드렸다. 경찰에 대한 반목과 불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비무장한 흑인 소년 피격 사건으로 번진 퍼거슨 소요 사태의 여파로 연일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간 긴장 구도가 팽배했다.



토니 리 목사는 양측의 화해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 "우리는 곧 당선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경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힘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 겁니다."
리 목사는 서장과 경찰에게 일일이 인수 기도를 할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예배 참석한 교인 900여명 가운데 절반이 경찰에게 다가가 포옹과 악수를 건넸기 때문이다. 리 목사는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보코 하람 탈출 여학생 기도

지난 4월 나이지리아 치북에서 발생한 보코 하람의 기독교 여학생 납치 사건에서 탈출한 한 학생이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장세력이 폭력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시 폴(18)은 최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멈춘다면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양은 치북에서 보코 하람에게 납치당한 276명의 여학생 중 한명이다. 그녀는 탈출 후 미국 오리건 주 케네티벨의 한 기독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당시 보코 하람은 여학생들을 트럭에 싣고 숲으로 달렸으며 학교에 불을 질렀다고 폴 양은 회상했다. 그녀는 살 수 있을지, 걸을 수 있을지 판단하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수십명의 여학생들도 탈출했지만 200명 이상은 탈출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 이들을 석방하라는 국제적인 압력과 나이지리아 군대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치된 여학생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코 하람의 지도자들은 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거나 신부로 팔려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슬람 테러집단은 지난 5년 동안 나이지리아 정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주 공격대상은 기독교인이다. 주로 교회당에 폭탄 공격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에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기도 한다. 12월 초에는 나이지리아 동북부 포터스콧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 48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미국 내 비영리단체들은 나이지리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머시 폴 양도 기독교단체인 '주빌리 캠페인'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했다. 단체들은 보코 하람으로부터 탈출한 57명의 여학생을 미국으로 데려와 학교를 마치도록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교계 "에릭 가너 판결 충격적"

미국 교계가 에릭 가너 사건 연루 경관에 대한 대대적인 불기소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남침례회 종교와윤리 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동영상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뉴욕 대법정은 흑인 에릭 가너(43)를 목 졸라 쓰러뜨려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가너는 지난 7월 스테튼아일랜드에서 불법 담배를 팔다 경찰에 붙잡혀 목 조르기를 당해 숨졌다.
무어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정부가 거리에서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정의 혹은 어떤 인정할 만한 정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모든 특별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 정부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퍼거슨 사건과 달리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대법심 판결을 비판했다. 알 샤프런 목사 등 흑인인권운동가들은 13일 워싱턴DC에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국민행진'을 열기로 했다.

망가는 교인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무장경찰은 교회 재산을 포기하라고 강압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38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했다. 당국은 쇼핑센터의 건설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대한 일련의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한 피해자는 "감옥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체포 당일 25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교회 장로인 다우드 바시르와 한 여성이 심하게 맞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시르 장로는 "이것은 수단 교회에 대한 심각한 박해"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의 피해를 알려달라. 그래야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독교에 대한 수단 경찰의 첫 번째 공격은 지난달 17-18일 발생했다. 니일신학대학교에 속한 몇몇 가정의 집과 교회 벽을 불도저로 파괴했다. 경찰은 하피즈 파사하 목사의 집과 청소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2개의 다른 건물도 파괴했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월 교회에 대한 불도저 공격은 교회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샀다고 주장하는 무슬림 사업가 칼리드 무스타파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산 양도를 거부한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올해 초 북부 하르툼의 티바 알 하미이다 지역의 수단그리스도교회와 움두만회 수단그리스도교회 등을 철거하고, 수단오순절교회 하르툼기독교센터 등을 폐쇄했다.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2011년 남수단과의 분리 이후 이슬람 종교와 문화, 아랍어 사용을 강화하면서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체포도 이뤄졌다. 또 외국 기독교인을 추방했고, 교회 건물을 불도저로 밀어 버리거나 기독교인에게 남수단으로 떠나라고 협박해 왔다.
수단은 2013년 4월 이후 새 교회 구성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교회 건축도 불허하고 있다. 바시르 대통령은 수단 서부 다르 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과 반인륜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첫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는 수단을 기독교 및 인권 침해 국가로 특별 지정하고 있다.

미국 교계 "에릭 가너 판결 충격적"

미국 교계가 에릭 가너 사건 연루 경관에 대한 대대적인 불기소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남침례회 종교와윤리 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동영상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뉴욕 대법정은 흑인 에릭 가너(43)를 목 졸라 쓰러뜨려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가너는 지난 7월 스테튼아일랜드에서 불법 담배를 팔다 경찰에 붙잡혀 목 조르기를 당해 숨졌다.
무어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정부가 거리에서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정의 혹은 어떤 인정할 만한 정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모든 특별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 정부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퍼거슨 사건과 달리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대법심 판결을 비판했다. 알 샤프런 목사 등 흑인인권운동가들은 13일 워싱턴DC에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국민행진'을 열기로 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미조리주스프링필드 에 위치한 PC USA에서 독립한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에서 다음과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따르는 장로교목사
 2.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으로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이상학위를 소지하신분
 3. 연령이 40세-50대초반이신분
 4. 3년이상 이민목회경력(부목사포함) 을포함하여 총목회경력이 5년이상되신분 (미국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기간을 이민목회기간으로 인정할수있음)
 5.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가능하신분
 6. 2중언어(한국어/영어)가가능하신분

- 제출 서류**
- * 이력서(한/영각 1부)
 - * 자기소개서(가족소개및가족사진포함)
 - * 최근 6개월내설교 2편(해당 CD/DVD)
 - * 최종학력증명서 와 목사안수증명서
 - *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 제 출 처**
- * 우편: 청빙위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1559 S. Grant Ave. Springfield MO 65807

*Email:kpccs.callingtoMO@gmail.com

- *기타사항:**
1. 제출된서류는 비밀을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서류심사를 통과하신분께 개별연락 드립니다.
 3. 문의:청빙위원장 김태수장로 (417-894-8329)
청빙위원 김인숙집사(417-683-0551)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ringfield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60)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성령의 사역과 기도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그의 책 "성령의 사역" 제 3권 마지막장에 기도를 쓰고 있다. 이는 마치 요한 칼빈이 그의 기독교강요 제 3권 20장 전장에서 기도를 다룬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칼빈의 기도론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원칙, 기도소도와 중보 등의 큰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카이퍼의 경우는 기도의 요소, 기도와 의식,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 중생자의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다. 그런데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과 기도와 연관성을 다루고 있다. 카이퍼가 "성령의 사역"에서 각종 이론을 펼 때 조직신학적 체계를 세운 책이 아니라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해 나가는 것

이다. 카이퍼는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매 페이지마다 힘주어 말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에서

지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간구, 감사, 찬양이 있는데, 기도와 찬양은 실제로 있어서 하나라는 것이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는 항상 찬양하지 않

을 수 없으니, 기도는 찬양보다 간구에 가까운 것뿐이라고 했다. 카이퍼는 기도와 의식(意識)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도의 형식이 기도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단순히 사상적 신음이나, 놀린 영혼이 구원을 찾는 탄식일 수 있다. 기도는 심지어 말이나 노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의식이 있는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그 뜻을 개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기도의 특성은 나타난다. 그러나 기도의 근저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도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고 했다.

카이퍼는 기도의 형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번민하여 위안을 갖지 못할 때 기도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의식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적 존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도의 가능성은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속에 심오한

근거를 발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기도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창조사역 속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음을 살펴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인간의 창조사역 속에서 성령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간의 자아 의식을 소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사역을 발견해야 한다. 인간은 그렇게 영적 존재이니만큼 인간의 기도생활에 대해서도, 인간의 창조사역에 나타났던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능력도 후대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 속에서 나온 고유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

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창조 때 성령님이 함께 했으므로 기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기도는 기도하려는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

니다. 즉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분이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자와 친분을 가질 수 없으며, 아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성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와 친분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저급한 기도, 연약한 기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기도가 비록 불완전하며, 성숙되지 않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도하신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를 떠나신다면, 신앙과 사랑, 기도의 활동이 모두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아서서 도울 힘이 없는 우리를 보살피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외에도 카이퍼의 "성령의 사역"은 성령과 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성화론의 중심은 모든 개교회교의 공유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기도와 찬양은 실제론 하나...기도는 간구에 가까워 창조사역에 나타났던 성령의 사역있어야 기도 가능

아니다. 기도는 단순히 사상적 신음이나, 놀린 영혼이 구원을 찾는 탄식일 수 있다. 기도는 심지어 말이나 노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의식이 있는 한,

근거를 발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기도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창조사역 속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음을 살펴볼지 않을

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창조 때 성령님이 함께 했으므로 기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기도는 기도하려는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

가정사역 칼럼



피부접촉 결핍증-르네 스피츠 박사의 마라스무스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피부접촉 결핍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린이가 많이 울거나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접촉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피츠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피부접촉이 인간의 중요한 욕구임이 밝혀졌습니다. 강한 형태의 피부접촉은 삶과 삶이 맞는 경험입니다. 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동맥경화제가 함유된

음식을 투여한 두 종류의 토끼로 실험한 결과, 사람들이 들어 올려 쓰다듬어준 토끼들은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았는데, 사람의 손길을 받지 못한 토끼들은 동맥경화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유아들은 피부접촉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다음은 유아의 피부접촉결핍에 관한 르네 스피츠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네 스피츠 박사는 감옥에서 태어났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국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스피츠 박사는 어린 아이들의 불행한 환경에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높은 유아 사망률은 떨

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원인을 병을 마라스무스 병 (Marasmus)이라 명명했습니다. 마라스무스는 희랍어인데, '명확한 의학상의 이유 없이 시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멕시코에서 겨울 휴양을 즐기던 스피츠 박사가 예기치 않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휴양지 근교의 한 고아원이었는데, 미국의 병원에 비해 위생적이지도 않았고 영양공급 상태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두 행복해보였습니다. 뺨은 빨갛게 핏색이 돌았고 건강미가 넘쳐났으며, 별로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스피츠 박사는 휴양을 접고 그 고아원에 몇 달간 머물면서 아

이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관찰 결과 스피츠 박사는 아이들이 건강한 것은 이웃마을에 사는 여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마을의 아낙네들은 매일 고아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스피츠 박사는 수 천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관찰한 "생의 첫해"(The First Year of Life)라는 연구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나 늘 무모차에 실린 채 피부 접촉도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접촉결핍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갔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연관

되어 있고, 또 그들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포옹하고 만져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세티아는 특히 4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는 건강유지 차원에서라도 하루 한 번 이상 포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사랑으로 소외된 분들의 마음과 손을 어루만져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그는 아무리 자신의 코에 지저분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씻지 않으면 냄새나는 부정적인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특히 여기서 아굴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어리석은 자는 배설물이나 오물로 더럽혀진 몸은 잘 알고 분별하여 깨끗이 씻어내면서도,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영적 도덕적 더러움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코 씻어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우매와 무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

가는 음식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마15:17-18). 그렇다면, 과연 내 삶에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절은 바로 그 원인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고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바로 그 원인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실로 겸손하고 깨끗할 때,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실도 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깨끗하신 분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삶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간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제대로 치유 받을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삶, 그것은 오직 허탄과 거짓과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굴과 같이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 되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분명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이면생활이라도 그 무엇이든, 그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한 다 할지라도 늘 하루하루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5년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서부(CA)교회안내</h2>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반석교회: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00, 11:0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ll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5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1721 N. Broadway Ave.,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 오전 5:30 목요일: 오전 5:30 금요일: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주둔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rock@gmail.com</p>	<h3>남가주리더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3>남가주사망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아예배) 주일부예배: 오전 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동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okpc.org</p>	<h3>동문교회</h3>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8700 Harvard Ave.,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p>
<h3>중앙선교회</h3> <p>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례예배: 오전 9:30 3부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2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Marquez St., Bk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아)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아)4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022, Fax: (213)381-2535 170 Binim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요일예배: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영양) 목요일예배: 오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1:00 목요일예배: 오후 1:00(영양) 목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하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p>	<h3>브리지교회</h3> <p>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p> <p>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h3>남가주삼성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30(월-토)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영양) 주일 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부예배: 오후 3:30(영양) 주일 9부예배: 오후 4:00(영양) 주일 10부예배: 오후 4:30(영양) 주일 11부예배: 오후 5:00(영양) 주일 12부예배: 오후 5:30(영양) 주일 13부예배: 오후 6:00(영양) 주일 14부예배: 오후 6:30(영양) 주일 15부예배: 오후 7:00(영양) 주일 16부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 17부예배: 오후 8:00(영양) 주일 18부예배: 오후 8:30(영양) 주일 19부예배: 오후 9:00(영양) 주일 20부예배: 오후 9:30(영양) 주일 21부예배: 오후 10:00(영양) 주일 22부예배: 오후 10:30(영양) 주일 23부예배: 오후 11:00(영양) 주일 24부예배: 오후 11:30(영양) 주일 25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26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27부예배: 오후 1:00(영양) 주일 28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29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30부예배: 오후 2:30(영양) 주일 31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32부예배: 오후 3:30(영양) 주일 33부예배: 오후 4:00(영양) 주일 34부예배: 오후 4:30(영양) 주일 35부예배: 오후 5:00(영양) 주일 36부예배: 오후 5:30(영양) 주일 37부예배: 오후 6:00(영양) 주일 38부예배: 오후 6:30(영양) 주일 39부예배: 오후 7:00(영양) 주일 40부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 41부예배: 오후 8:00(영양) 주일 42부예배: 오후 8:30(영양) 주일 43부예배: 오후 9:00(영양) 주일 44부예배: 오후 9:30(영양) 주일 45부예배: 오후 10:00(영양) 주일 46부예배: 오후 10:30(영양) 주일 47부예배: 오후 11:00(영양) 주일 48부예배: 오후 11:30(영양) 주일 49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50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51부예배: 오후 1:00(영양) 주일 52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3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4부예배: 오후 2:30(영양) 주일 5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56부예배: 오후 3:30(영양) 주일 57부예배: 오후 4:00(영양) 주일 58부예배: 오후 4:30(영양) 주일 59부예배: 오후 5:00(영양) 주일 60부예배: 오후 5:30(영양) 주일 61부예배: 오후 6:00(영양) 주일 62부예배: 오후 6:30(영양) 주일 63부예배: 오후 7:00(영양) 주일 64부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 65부예배: 오후 8:00(영양) 주일 66부예배: 오후 8:30(영양) 주일 67부예배: 오후 9:00(영양) 주일 68부예배: 오후 9:30(영양) 주일 69부예배: 오후 10:00(영양) 주일 70부예배: 오후 10:30(영양) 주일 71부예배: 오후 11:00(영양) 주일 72부예배: 오후 11:30(영양) 주일 7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74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75부예배: 오후 1:00(영양) 주일 76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77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78부예배: 오후 2:30(영양) 주일 79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80부예배: 오후 3:30(영양) 주일 81부예배: 오후 4:00(영양) 주일 82부예배: 오후 4:30(영양) 주일 83부예배: 오후 5:00(영양) 주일 84부예배: 오후 5:30(영양) 주일 85부예배: 오후 6:00(영양) 주일 86부예배: 오후 6:30(영양) 주일 87부예배: 오후 7:00(영양) 주일 88부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 89부예배: 오후 8:00(영양) 주일 90부예배: 오후 8:30(영양) 주일 91부예배: 오후 9:00(영양) 주일 92부예배: 오후 9:30(영양) 주일 93부예배: 오후 10:00(영양) 주일 94부예배: 오후 10:30(영양) 주일 95부예배: 오후 11:00(영양) 주일 96부예배: 오후 11:30(영양) 주일 97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98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99부예배: 오후 1:00(영양) 주일 100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101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102부예배: 오후 2:30(영양) 주일 103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04부예배: 오후 3:30(영양) 주일 105부예배: 오후 4:00(영양) 주일 106부예배: 오후 4:30(영양) 주일 107부예배: 오후 5:00(영양) 주일 108부예배: 오후 5:30(영양) 주일 109부예배: 오후 6:00(영양) 주일 110부예배: 오후 6:30(영양) 주일 111부예배: 오후 7:00(영양) 주일 112부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 113부예배: 오후 8:00(영양) 주일 114부예배: 오후 8:30(영양) 주일 115부예배: 오후 9:00(영양) 주일 116부예배: 오후 9:30(영양) 주일 117부예배: 오후 10:00(영양) 주일 118부예배: 오후 10:30(영양) 주일 119부예배: 오후 11:00(영양) 주일 120부예배: 오후 11:30(영양) 주일 121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122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123부예배: 오후 1:00(영양) 주일 12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125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126부예배: 오후 2:30(영양) 주일 127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128부예배: 오후 3:30(영양) 주일 129부예배: 오후 4:00(영양) 주일 130부예배: 오후 4:30(영양) 주일 131부예배: 오후 5:00(영양) 주일 132부예배: 오후 5:30(영양) 주일 133부예배: 오후 6:00(영양) 주일 134부예배: 오후 6:30(영양) 주일 135부예배: 오후 7:00(영양) 주일 136부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 137부예배: 오후 8:00(영양) 주일 138부예배: 오후 8:30(영양) 주일 139부예배: 오후 9:00(영양) 주일 140부예배: 오후 9:30(영양) 주일 141부예배: 오후 10:00(영양) 주일 142부예배: 오후 10:30(영양) 주일 143부예배: 오후 11:00(영양) 주일 144부예배: 오후 11:30(영양) 주일 145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146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147부예배: 오후 1:00(영양) 주일 148부예배</p>				

창조과학 칼럼 (215)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4) 분자시계

현 인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출현이 10~20만 년 전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수십억 년의 진화론적인 역사에서 20만년은 연대표에 시간으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의 한계를 훨씬 넘어가는 긴 기간이다. 따라서 탄소 연대측정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진화론자들은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DNA의 돌연변이를 분석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을 '분자시계'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분자'라 함은 DNA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자시계는 DNA의 변화량을 변화속도로 나누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핵 DNA는 양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가 흔재해 있어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 있는 DNA는 핵 DNA의

이다. 이런 확인할 수 없는 가정들을 깔고 계산된 수치가 10~20만 년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 인류가 10~20만 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진화론의 패러다임 안에서 진화를 가정으로 만들어

gion. Nature Genetics. 15(4): 363-8, 1997). 또 다른 보고는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 속도가 기존의 상식보다 20배나 더 빠르다고 한다(Gibbons, A., Calibrating the Mitochon-

한 세대 당 돌연변이 수가 60개나 되었다(http://www.nih.gov/news/health/oct2010/nhgr-27.htm). 돌연변이 속도가 기존 예상치보다 20배나 더 빠르다. 미토콘드리아 DNA만이 아니라 핵 DNA에서도 돌연변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은 분자시계가 20배나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인류의 기원은 20배나 짧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론 과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이 수천년으로 계산 될까봐) 예상보다 훨씬 빠른 돌연변이 속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새로운 돌연변이 속도를 분자시계에 적용하면 인류의 기원이 성경과 비슷하게 6,000년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창조 시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막10:6). 사람이 창조될 때는, 백방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창조 후 138억년 후가 아니라, 창조 당



건강한 자녀 키우기

요즈음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세미나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요즈음의 부모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를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아이를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다. 자녀를 여러 명 낳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한 가정에 한 두 명 자녀를 낳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텐데 왜 점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신학자들은 그 중의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든 "자존감 높이기" 운동의 여파라고 말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self-esteem에 관한 운동들은 아이의 높은 자존감이 그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핵심요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You are special"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또한 실패의 경험은 아이를 주눅 들게 하므로 가능한 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의 성취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최근에 행해진 연구결과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방식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나타낸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가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낮으며 자신의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분노조절 능력이 낮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좋은 의도로 실천한 자존감 높이기가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스페셜special한 존재라고 믿는 자아 도취(narcissism)에 빠진 아이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자기는 당연히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직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질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지면 상사에게 자기는 이런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직장을 그만 두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즉 높은 자존감을 키운 결과로 각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릇된 신념을 낳았다. 아주사피사픽대학의 교수인 스티브 윌킨스는 개인주의의 본질이 나의 관심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주의에서는 가족, 공동체, 사회조차도 2차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상이 강조한 높은 자존감을 지닌 아이는 상대방을 세우고 배려하며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모세, 예레미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없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나는 아이라 말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성경적인 자녀양육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높은 자존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아상을 지닌 자녀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강한 생각을 하며 씩씩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다. 그런 자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지 모든 사람이 스페셜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암울한 세상에 작은 빛들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메일: lpyun@apu.edu

분자시계 정확하려면 DNA 돌연변이 속도가 일정해야 최근 빠른 돌연변이 속도 측정 결과로 진화론에 비상

0.01% 정도로 작을 뿐 아니라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므로 관계 추적이 훨씬 간단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자시계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서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속도(km/h)는 지나는 거리(km)를 시간(h)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거리의 양과 속도를 알면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분자시계도 마찬가지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이 정도(=양)를 측정하고,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생겨나는 돌연변이 속도(=돌연변이 수/세대)를 나누어 세대 수(=시간)를 얻는다. 얼핏 보기에 이 방법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분자시계의 문제점은 고정된 일반시계의 문제점과 동일하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야 한다. 분자시계가 정확하려면 현 인류가 존재할 이후로 돌연변이 속도가 일정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정을 확인해줄 중언이 없고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다. 현재의 돌연변이 속도가 처음부터 현재와 같이 유지되었다고 믿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돌연변이 속도는 집팬지와 사람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시간이 600만 년이라는 진화론의 믿음에 근거를 둔 것



낸 값일 뿐이다. 최근 이 분자시계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300~600세대마다 한 개의 DNA가 돌연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7년 134가족 35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 한 결과와는 진화론자들을 엄청 당황케 했다. 돌연변이 속도가 과거에 믿고 있었던 것보다 거의 10배가 빠른 40세대마다 한 개씩 발생하였기 때문이다(A high observed substitution rate in the human mitochondrial DNA control re-

drial Clock. Science 279:28-29, 1998). 돌연변이 속도가 빨라지면 분자시계에서 인류의 역사는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비단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 속도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것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사람의 전체 DNA를 읽는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개인들의 전체 DNA가 해독되고 있다. 2010년 10월 27일까지 1,000명의 게놈 해독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 두 가족 6명의 부모와 딸을 정밀 조사한 결과는

시인 불과 6000여 년 전 창조 주 기간이란 말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를 전부 합하면 약 6000년이 나오고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맨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후손이다. 새 분자시계는 성경과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한 상태(죽음)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오신 사건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고전 15:45)이기 때문에 첫 아담이 실존적 존재일 때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인류 존재 이전부터도 죽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은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 창세기 1장과 다른 어떤 창조이론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 이론들은 모두 다 진화론을 사실상 믿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론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참 기쁨의 소식을 새롭게 하는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메일: mailforwoos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금요찬양부: 오후 6:00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부: 오후 8:30 수요일 영모임: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45 금요찬양부: 오후 8:45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에사라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1부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5:00 영어예배: 오전 1:00	킨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킨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영모임: 오후 7:3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40 새벽기도회: 오전 5: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아침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40 영,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복 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주일4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47



목회서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사람들이 기도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인원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작은 방으로 기도실을 옮겨야 했고 결국 기도운동은 중단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감독자가 나서서, 기도모임을 절대 폐지하지 말고 더욱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며 저들을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3-4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Now is the time to pray).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민교회와 조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당대에 38선의 철조망이 걸리고 독일처럼 한반도에도 통일이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통일한국이 마지막 때에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 않으면 나타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동독인들이 라이프찌히에 있는 니콜라스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듯이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음세대들이 통일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2-13).

동독의 라이프찌히(Leipzig)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가 오랜 세월 성토마스교회 악장으로 활동했던 음악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라이프찌히는 독일의 통일에 기여한 니콜라이교회로 인하여 다시 세계인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성 니콜라이는 상공인과 중소 실업인의 성자로 그 이름의 뜻은 '약자들을 돌보는 방패'입니다. 라이프찌히 도시의 설립과 같은 때

에 이어진 이 유서 깊은 성 니콜라이교회는 도시의 종교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처럼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의 역할을 했습니다.

1981년 동독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운동'이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독의 러시아 미사일 설치와 서독의 나토(NATO) 핵무기 설치 문제로 두 독일이 대립되는 상황을 안

타깝게 지켜보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15-22세)이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고, 그 모임은 매주 모이는 '평화를 위한 월요기도 모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이 기도회를 3-4년간 인도하였는데, 점차 300-400명이 매주 참석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큰 기도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독에 핵무기가 배치되자 실망한

“복음의 순수성 지켜 나가겠다”

뉴저지교협 2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교협 2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저지교협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 제2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지난 8일 오전 11시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에서 열렸다. 뉴저지목사회 회장을 거쳐 교협

역할을 잘 감당해 교회의 위상을 높여왔다. 기존의 연례사업은 추진해 나가지만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다. 둘째, 모든 교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연합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 그래서 28회기 임원들을 대폭 늘였다. 셋째, 이단 침투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회원교회 증서 발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병준 회장은 "이명증서의 활성화를 통해 무분별한 교인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한 교회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는 양준길 목사(뉴저지교협 증경회장), 박효성 목사(KMC 감리사), 이재덕 목사(뉴욕교협회장) 등이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2014년도 총회 및 송년 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역교회 협력 풍토 조성”에 최선

사우스베이목사회 신임회장에 김현수 목사 선출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병용 목사) 2014년도 총회 및 송년 예배가 지난 7일 오후 6시 토랜스선한목사교회(담임 김현수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병용 목사의 사회로 이장진 목사(토랜스함께하는교회)가 대표 기도하고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배소서 2장17절-18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빠른 세월 속에서 1년을 또 보내고 있는 오늘 이 현장에서 뒤돌아보니 못다 일들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 부끄럽다.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품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속회된 총회에서 일반 사무 처리를 마치고 2015년 신임 회장으로 그동안 총무로 봉사하던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사교회)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회장 김현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는 교회의 대소를 막론하고 상호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하나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는 지난 10월 교회연합 성가제를 개최하고 교회 상호간 침묵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2014아주사동문들의 밤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4 아주사퍼시픽 동문의 밤 성료

동문 목회자 강사로 멘토링 시간 가져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월레스) 한인동문회(회장 광경동 목사)가 주최한 2014 아주사 동문의 밤이 8일 오후 6시30분 본교 이스트캠퍼스 내 LAPC 룸서 열렸다. 이날 동문의 밤은 1부 저녁만찬,

2부 예배, 3부 목회자 멘토링 시간으로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신원규 목사(남가주삼성장로교회)의 환영사로 시작된 1부 만찬은 릭 기븐스 APU 총동문회 디렉터의 환영인사 후 수석부회

장 정중환 목사가 동문임원, 졸업생, 학교직원, 후원기업 등을 차례로 소개를 했다.

광경동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예배는 승광철 목사와 김창군 목사가 찬양 인도했으며, '전세계 아주사 디아스포라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 했다.

이어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며, APU 재학생 찬양팀이 특송을 했다. 이날 현용수 박사(쉐마교육학회 회장)가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라'(창18: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가 축사를, 추영욱 목사(남가주안디옥교회)가 격려사를, 박성민 박사(APU 총장 특별고문)가 축조했다.

3부 목회자 멘토링은 박용덕 목사, 신원규 목사, 조현영 목사, 추영욱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멘토링을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기독교언론협회 총회에서 회원들이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기독교언론협회 박재호 회장 유임

28일 정기총회, 임원도 모두 유임

세계기독교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정기총회가 지난달 28일 오

전 10시 옥스퍼드팔레스트호텔에서 열려 박재호 회장 및 2014년도 회장단이 유임됐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윌리엄 발행인)의 사회로 열린 총회는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사 LA지사장)가 기도했고 박재호 목사(현 회장/브라질남미북음신문사 발행인)가 '예수만 전파자'(딤후4: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인은 일반 언론과 달라야 한다. 예수를 잘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협회는 2015년에 좋은 신앙서적 독후감 발표 및 남미 선교현장 방문취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재외동포 위한 사이버대학 교육설명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소속 8개 대학 참여

대한민국 재외동포(LA지역)를 위한 사이버대학 교육설명회가 6일 오후 2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와 8일 오후 2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 회장 박영규 국제사이버대 총장) 주최로 열린 이번 교육설명회는 본 협의회 소속 21개 대학 중 8개 대학(경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송실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이 참여했다.

윤병국 박사(한국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한국 사이버대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시작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인정되고 있어 미래대학의 중요모티브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박사는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인가됐으며 일반대와 동일한 고등교육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유학 물론 각종 자격증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박사는 "이번 설명회는 미주지

역에서 사정상 학업을 중단한 분들과 학위취득을 했지만 좀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며, "미국의 비싼 학비 부담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퀄리티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대학은 학점제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분들은 전 학교에서 못한 부분만 하면 된다. 35학점 2학년, 70학점 3학년, 4학년 편입도 가능한 정도로 유연한 학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대학에 입학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학의 입학정원은 1학년과 2학년 기준으로 1,000-3,000명이며 학업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원대협은 2015년부터 LA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으로 사



이버대학 교육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나갈 것이라 밝혔으며,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특화된 학과개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원대협과 8개 사이버대학이 6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1차 설명회가 열리기 전 LA한인상공회

대한민국 재외동포를 위한 사이버대학 교육설명회가 6일 월드미션대학교와 8일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사천위쪽은 6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갖은 LA한인상공회(회장 전석호, 이하 LAKACC)·미주한국학교연합회(회장 박종리, 이하 KOSSA)와 교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모습, 사진 아래쪽은 8일 오전 JJ그램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시간에 참여한 8개대학 관계자들 모습

의소(회장 전석호, 이하 LAKACC)·미주한국학교연합회(회장 박종리, 이하 KOSSA)와 교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 체결로 8개의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미주한국학교연합회와 LA한인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자들에게 30-50% 가량의 장학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엘리아" 공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오는 14일(주) 저녁 5시,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과 성탄절 기념으로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공연한다. 왕상 17장-19장의 엘리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바알신의 갈멜산의 대결과 엘리아의 승천이 음악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윤원상 전도사 지휘로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와 조형식, 강해영, 김유경, 소철화, 최지혜, 소유영 씨 등이 독창자로 나선다.

▲문의: (718)886-4040

뉴욕중부교회 자선음악회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주최하는 자선음악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12월 14일(주) 저녁 7시 퀸즈칼리지 풀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전곡을 영어로 공연하며 수익금은 For Hope International, 한미정신건강 협회, 뉴욕가정상담소, Batey Relief Alliance 등 4 단체에 전달된다. 광병국 음악디렉터의 지휘로 뉴욕중부교회 연합찬양대와 Lisa Daltirus, 박영경, William Joyner, Peter Becker 등이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718)279-2757

반주자 청빙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상희 목사)에서 반주자를 청빙한다. 이메일: sheo1004@hotmail.com

▲문의: (201)981-0009

반주자 청빙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가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반주자를 찾고 있다. 담당은 주일 성가대 반주로 피아노 전공자. 이력서와 신앙고백서 및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

▲문의: moaksong@gmail.com

뉴욕리폼드신학교 2014년 가을학기 종강예배

"당신은 제자인가?" 유상열 학장 설교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목사) 2014년 가을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7일 저녁 본교가 있는 리빙스톤교회에서 열렸다.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예배는 교수 김승민 목사의 기도예배에 이어 학장 유상열 목사가 설교했다. 유 목사는 "당신은 제자인가?"(마10:5-10)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군중이 아니다. 제자가 되려면 군중 속에서 나와야 한다. 제자는 비전이 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또 제자는 타인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유상열 목사는 "주님은 제자를 만들려 오셨다"며, "첫째 주님 닮는 제자의 삶, 둘째 주님 닮는 양식을 따르는 삶, 셋째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의 전파 방법인 지혜와 순결로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라"고 강조하고 "잡 교회의 부흥은 깨끗한 제자들을 통해 이뤄진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고 전했다.

이어 교수 최호의 목사가 헌금기도와 축도를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학생들은 2015년 봄학기 개강(개강예배: 2월 15일)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방학 중간인 1월 11일(주) 저녁부터 사흘 동안 뉴저지 크리스탈리조트 센터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한편 개강예배 후에는 16일과 17일 조국환 목사(전 학장)를 강사로 특별 공개세미나를 진행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교 가을학기 종강예배를 마치고 교수, 학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2단체에 구호금, 9명에 장학금 전달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이웃사랑 성탄찬양축제 성료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이 주최한 이웃사랑 성탄찬양축제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에벤에셀선교교회 임직자들이 담임 최창섭 목사, 이재홍 목사(앞줄)와 함께 기념촬영 했다.

"겸손하며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바쳐라"

에벤에셀선교교회 집사안수 및 권사임직 예배

에벤에셀선교교회(공동 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 집사안수 및 권사 임직예배가 지난 7일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임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취임: 최우석 △집사안수: 김정돈, 이선주, 이종철 △권사취임: 이정애, 최안순, 최진원 △명예권사: 김영순, 박미선, 장열자.

1부 예배는 최창섭 목사의 집례로 박진하 목사(퀸즈침례교회)의 기도, 집례자의 성경봉독, 찬양대 찬양, 말씀 백창건 목사, 특송과 헌

금, 헌금기도 박미림 목사(한마음침례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백창건 목사(새문침례교회)는 '내 마음에 향한 사랑'(행12:22-23)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오늘의 임직의 성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알 수 있다. 직분자는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내외면의 겸손을 갖추며, 자신의 은사를 발굴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2부 임직식은 최창섭 목사의 집례 하에 지방회 총무 이선일 목사의 시취보고, 집례자의 안수사 소개와 서약 후, 뉴욕한인침례교회 지방회 김재용 목사를 비롯한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 악수례, 집례자의 공포, 안수집사패와 임직패 전달을 통해 집사 안수식과 권사 임직식을 가졌다.

이어 노순구 목사(리버데일교회)가 임직자들에게 권면, 신성한 목사(부활의새빛교회)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축사는 뉴욕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 최애성 목사(뉴욕복음교회), 문종성 목사(뉴저지침례교회)가 했으며, 이어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식, 최우석 안수집사의 답사, 김정돈 안수집사의 광고, 전병창 목사의 축도와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의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라: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이하 여성목협, 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한 이웃사랑 성탄찬양축제가 지난 8일 저녁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여성목협 산하에 살렘찬양단을 세워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의 노래처럼 우리 영혼에 기쁨과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감옥같은 캄캄한 환경의 문이 열리는 소망의 찬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찬양축제는 김수경 목사의 찬양인도 후 관케더린 목사의 사회로 장경혜 목사의 기도, 독창 안경순 목사, 8명의 중창, 이중창 김인식 목사, 이주현 사모, 색소폰 연주 유상열 목사, 헌금기도 장현숙 목사, 헌금특주 바이올린 김민영 집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여성상담교육센터(원장 배임순 목사),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 밀알장애인선교단(

단장 김자숙), 코모장애아동서비스센터(대표 전선덕 권사), 사랑의터키 한미재단(대표 전상복 장로), 미동부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미동부생명회(대표 김영호 목사), 농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 오픈손구제센터(디렉터 안승백 목사), The 2nd Life Foundation(대표 김수경 목사), 거리의식탁(대표 박은희 목사) 등 총 12개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백승호, 강애린, 함은비, 호세 페르난데즈, 박상우, 노신혜, 브랜던 킨, 오시형 한하은 등 9명에게 수여했다.

이어서 살렘찬양단(단장 관케더린 목사, 지휘 김수경 목사)이 "사랑의 왕", "천사들의 노래", "죄인들의 구세주", "은혜상 모두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의 찬양을 연주했으며 이취실 목사와 관케더린 목사가 "오 거룩한 밤"을 한국어와 영어로 불렀다.

이날 축도는 이재덕 뉴욕교협회장이 했으며 총무 김정숙 목사의 광고 후 이만호 뉴욕목사회 회장의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노란손수건DAY' 전도세미나 강사 정진모 목사(오른쪽 세번째)와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노란손수건DAY' 전도세미나

뉴욕전도협의회, 뉴욕전도대학교 주관

뉴욕전도협의회와 뉴욕전도대학교 주관한 '노란손수건DAY' 전도세미나가 정진모 목사를 강사로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오전과 저녁으로 개최됐다.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당에서 열린 세미나 첫날 정진모 목사(평화장로교회 담임)는 "믿음의 눈을 뜰 때"(왕하6:8-13)라는 주제로 설교와 간증을 하며 '노란손수건DAY' 전도법을 소개했다.

정 목사는 "아람군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눈을 뜰 엘리사의 조언을 듣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고민은 믿음의 눈을 뜰 때 사라지고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또 자신이 치유의 체험자로 집회 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노란손수건DAY' 전도법은 "그 동안 주님의 자녀였다가 낙심해 잠시 세상에 빠져있는 자(휴면성도)들과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

게 복음을 제시한 후 한 날을 정해 그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날"로, 1년 동안 전도대상자를 정해놓고 준비하며, 1차 전도대상자 8명부터 시작해 마지막 2명으로 압축한다.

정진모 목사는 첫날저녁 "노란손수건Day란?"(시112:1-3), 둘째 날 오전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고전9:16), 저녁 "노란손수건Day 매뉴얼"(마9:37-38), 셋째 날 오전 "노란손수건Day의 실제"(행2:46-47), 저녁 "노란손수건Day의 실제"(막1:38-39)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정 목사는 자신의 저서 "100배의 축복을 가져온 노란손수건Day 전도법"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허윤준 목사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넘치는 3일이 될 것"이라며 각 교회 교인들과 친구들을 데려와 큰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담임목사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가미노회에 소속된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아래와같이 청빙코자 합니다

1) 자격

1.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소속 이거나 또는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본교단의전임승락이가능하신분)
2. 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Div이상)
3. 목사안수후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및 가족 소개서 (사모포함)
2.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목회계획서 (성장과정/ 목회비전/교회운영계획-A4 용지 4매이내)
4. 목사재직증명서 및 총회목사 안수증명서 (각 1통)
5. 추천서 2매 (연락처기재)
6. 설교 TAPE 또는 CD 2개

3) 제출기한 2015년 1월15일 (우편소인일자기준)

4) 제출처

1. E-mail : philadelphia9135@gmail.com
2. 우편 : 9135 132st , Surrey BC Canada V3V 5P6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604-584-5780)

5) 기타

1. 제출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분은 개별통지 합니다
2. 개별통보된분외의경우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3회 뉴욕총신의밤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도 바울의 흔적을 가지라"

제3회 뉴욕총신의밤 감사와 기쁨 넘쳐

제3회 "뉴욕총신의 밤"이 지난 2일 저녁, 플러싱 급강산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정익수 뉴욕총신대학·신학대학원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총동문회장 강유남 목사를 비롯한 동문들, 뉴욕 본교와 뉴저지 본교 재학생들과 내빈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예배, 제2부

만찬 및 환영, 제3부 사랑과 축복, 제4부 경품 잔치, 제5부 폐회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1부 예배는 강유남 목사(뉴저지 분교장, 주애수사랑교회) 사회로 기도 박희근 목사(뉴욕동원장로교회), 성경봉독 한상훈 목사, 설교 정익수 목사("바울의 흔적", 딤후4:7-8), 봉

헌 기도 박정은 전도사, 축사 뉴욕신학교협의회회장 윤세용 목사, 뉴욕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 뉴욕연합신학대학교 학장 김형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사장 직무대리 조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부 만찬 및 환영은 양경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규현 목사가 식사 기도를 했다. 제3부 사랑과 축복은 총동문회 총무인 권영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유남 총동문회장의 환영사, Yes! Lord Band의 축하 연주, 뉴저지분교 재학생 김옥람 학생부부의 국악, 동문 원로성직자회장 김전 목사의 축사, 동문 허상희 목사(뉴저지성도교회)의 격려사, 조의호 목사의 축시 낭송, 목회자 동문들의 화답송이 이어졌다.

제4부 경품 잔치는 재학생 이종수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재홍 목사, 미주기독교방송국 직원들, 허윤준 동부개척장로회신학교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총신)

“기도, 사랑, 성령의 역사 있는 교협으로”

OC교협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OC교협) 제24대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7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김기동 회장은 “부족한 제가 24대 회장이 돼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대 회기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협력을 생각했다. 첫째 기도로 연합해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 둘째 사랑으로 연합해 이 시대 외롭고 힘든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교협, 셋째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간증 있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

목사)에서 개최됐다. 송규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민경엽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교협기 이양에 이어 감기동 신임회장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협력 바란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영 김 거주하원의원, 송정명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김가등 OC한인회장, 권석대 OC 샌디에고 평통회장, 강순영 자매대표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영훈 한국 한기총 대표회장의 영상축사가 있었다.

이어 공로패 증정 및 취임패 증정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소개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허경삼 목사(OC 원로목사회 중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취임식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민승기 수석부회장의 사회와 나침반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나침반교회 성가대가 찬양했으며, 객재필 OC목사회 회장이기도를, 윤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 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한기총 목사(미기총 회장)가 ‘우리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서부장로교회 선교부흥회

미주서부장로교회(담임 김선익 목사, 1880 W 220th St, Torrance)는 탄자니아 인시탈 선교사를 감사로 초청한 가운데 선교부흥회를 19일(금)부터 21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19일과 20일 오후 7시30분, 21일 1부(오전 8시), 2부(오전 11시) 예배. ▲문의: (310)328-7020

OC 기독교평신도연합회 리틀 콘서트

OC 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는 ‘탄남과 섬김이 있는 리틀 콘서트’를 14일(주) 오후 5시 가든그로브 동보성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501-5479

미주장신대 2015년 봄학기 학생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2015년 봄학기 신(원)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신학사(BA)와 교역학석사(M.Div). 봄학기 개강은 2015년 1월 26일(월). ▲문의: (562)926-1023

엠코밋 선교사 자녀 돕기

미주지역 선교사자녀 지원 단체 엠코밋(mKommit)에서 연말을 맞아 장학금 기부를 받고 있다.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된 엠코밋은 또 다른 선교사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후원을 원하면 홈페이지 www.youcaring.com/mkommit2004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714)388-2422



제24대 OC교협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23대와 24대 회장단임 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사랑의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빛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직전 총회장 조일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한빛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 새성전입당 감사예배가 7일 오후4시에 성광리에 열렸다.

한빛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차광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LA 지방회장 황의정 목사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에 이어 조일래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직전 총회장)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대하5:11-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은경 자매의 봉헌을 위한 특송과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부총장 박성민 교수가 봉헌기도 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입당축하행

사는 한빛 미디어팀의 영상소개, 본교회 입장을 위해 수고한 송동현 시무장로, Archipro 건설대표 석호태 집사, 전기시설설비 Thavincer Peng 대표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LA동 지방회장 김영근 목사와 박성삼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가 축하했으며, 미주교단총무 박승로 목사가 격려사를, 국제찬양운동대학 울동팀의 찬양을동아 있었다. 이날 예배는 허경삼 중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KCCD 정신건강 강연자 모집

정신질환 극복 체험자...17일 교육 시작

한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가 샌프란시스코 정신건강협회와 협력해 정신건강 강연자를 모집한다.

KCCD는 “수치심, 당혹감, 무시,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 문화 안에서 금기시 하는 것으로 여겨져 자주 간과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 인해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 특별히 아



KCCD 정신건강 이니셔티브 런칭 및 강연자 모집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임혜빈 회장이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아인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겪었지만 극복했거나, 함께 고통의 과정을 이겨낸 가족 등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강연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혜빈 회장은 “미국 내 아시아인 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률은 다른 민족에 비해 가장 높으며, 5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아시아인 여학생들의 30%가 우울증을 갖고 있다. 같은 학년대의 아시아인 남학생은 17%가 육체적 학대를 경험하며 한인 기혼 여성의 60%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곧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가정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을 ‘정신병’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KCCD는 정신건강 강연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식과 정신질환 낙오의 벽을 허물고자 한다며, 정신건강 강연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정신건강 강연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은 오는 17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KCCD사무실(3550 Wilshire Bl, Suit 736)에서 실시된다.

▲문의: (213)985-1500

(박준호 기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목)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벤엘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전 10시, (8월) 오전 11시 유치, 유년부: 오후 10: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클루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엘파소영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5 수요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주일 아침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예장백석·대신 통합 8개항 전격 합의 통합교단 명칭 '예장 대신백석', 16일 통합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대신 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 임원들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층에서 양 교단 통합을 위한 8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양 교단은 16일 오전 11시 종남 전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한다. 양 교단 임원들은 이날 '대신·백석 통합 합의서'에서 "대신총회와 백석총회를 대표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열된 한국교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교단통합에 합의

한다"고 밝혔다. 통합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백석'으로 정했다. 다만 대신교단 소속 교회 중 90% 이상이 통합총회에 합류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또한 60% 이하의 교회가 합류할 경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으로 불리게 된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명칭은 대신 소속 교회 중 80% 이상이 합류할 경우 '백석대 대신신대원'으로 정했다. 통합교단의 역사는 '백석'의 역사를 사용한다. 역사편찬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교단사를 편찬할

때 대신총회의 역사를 포함해 발행키로 했다.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은 양 교단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예장대신 총회장을 지낸 최복규 목사가 맡는다. 양 교단 임원들은 내년 9월까지 직을 유지한다. 장종현 목사는 내년 9월부터 통합총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양 교단 총회장단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보장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9월 정기총회까지 '한 지붕 두 가지'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통합내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예장백석 사무총장과 대신 총무의 임기, 직원승계, 사무실 운영 등

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백석 측에서 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서기 김진범 목사가, 대신 측에서 총회장 전광훈 목사와 서기 이진해 목사가 각각 서명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대신교단은 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신 총회수호협의회 등 통합 반대 측은 16일 양 교단 통합총회를 강행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따로 모임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대신 통합전권위원회(위원장 최순영 목사) 전 권위원 이상재 목사는 "이런 합의는 총회장단이 할 일이 아니고 통합전권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13명으로 구성된 통합전권위원회는 이 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5일 오후 경기도 안양 대신 총회회관에서 열리는 통합전권위원회와 임원회 연석회의에서 통합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성서주일...지구촌에 성경 보냄시다

12월 14일...대한성서공회, 적극 참여 요청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오는 14일 성서주일을 맞아 한국교회 성경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8일 요청했다. 성서 주일은 성경이 없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보내기 헌금을 하는 날이다. 대한성서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난 질병 전쟁 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지구촌 이웃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우리가 보내는 한 권의 성경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서주일은 18세기 영국에서 성경 무료 보급 운동 이후 제정됐으며 국내에서는 1899년부터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 책임자 알렉산더 캔뮤어씨가 제안하면서 지켜졌다. 캔뮤어씨는 "한국 성도들이 서양으로부터 받은 성경을 통해 구원 받았으니 이제 지구촌 이웃에게 그 은혜를 돌려주자"며 성서주일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성서주일은 처음에는 5월이었으나 1948년부터 세계성서주일에 맞춰 교회력 대립절(대강절) 절기인 12월 둘째 주일로 바뀌었다. 대립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기에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 전 4주간이다. 대립절 기간에 성서주일을 정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성경을 보급하자는 취지라고 대한성서공회는 설명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성서주일에 걷은 헌금을 통해 전 세계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아프리카 24개국, 중남미 12개국, 유럽 중동 지역 7개국, 아시아 5개국 등 48개국 성서공회에 총 35만 여부의 성경을 제작해 무상으로 기증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통해 연간 171만 달러도 지원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전도회전권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어 성경 1만부를 쿠바에, 10월에는 서울 한사랑감리교회(황성수 목사)의 후원으로 미얀마 소수종족 언어인 하와나거어로 만든 성경 3000부를 미얀마에 전달했다. 대한성서공회 외에 다른 선교단체들의 성서보내기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모퉁이들선교회는 83년부터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고 있으며 기독교세진회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큰 글씨 성경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성서공회가 성경을 제작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면 선교단체 원바다(대표 박형석)는 성경을 읽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장로교단 사회적 책임 감당"

한장총 대표·상임회장 취임 예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제32회 대표·상임회장 취임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장로교단 연합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기행 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은 "다양성과 일치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에서 장로교단은 신학과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유일성, 사도신경 신앙고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구속, 예수 부활승천이라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한장총이 살기 위해선 이단을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수원 신임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백남선 신임 상임회장도 "한국교회와 연합사업을 하면서 분열되는 현상을 보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추락한 한국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표

회장님을 잘 보좌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예배에는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전병금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명예회장, 우중휴 예장합신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새 성전이 한국교회 모두가 활용하는 영적 공공재가 됐으면 좋겠다.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축하 화환 대신 들이온 쌀은 서울 시내 쪽방촌 거주자에게 전달된다.

회장님을 잘 보좌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예배에는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전병금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명예회장, 우중휴 예장합신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새 성전이 한국교회 모두가 활용하는 영적 공공재가 됐으면 좋겠다.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축하 화환 대신 들이온 쌀은 서울 시내 쪽방촌 거주자에게 전달된다.

한복총 제25대 김대성 대표회장 취임예배

"'한국교회에 희망있다' 그 분들과 동역하겠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인총연합회(대표회장 김대성 목사, 이하 한복총) 대표회장 김대성 목사 취임감사 예배가 지난 7일 오후 7시 경기도 광주 소명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취임식은 증경대표회장 노희석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손광호 목사의 기도, 문화예술위원장 박찬규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대표회장 장항희 목사가 출애굽기 4:17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과 능력"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설교 후 평화통일위원장 한명기

목사의 인도로 한복총의 사역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국제위원장 정균양 목사의 봉헌기도, 예배음악위원장 신경임 목사의 봉헌송, 미주LA지부장 남철우 목사의 약력 소개가 이어졌으며, 제2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김대성 목사에게 취임장과 한복총기가 전달됐다. 또, 세계성령중양협의회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와 상임회장 설동욱 목사가 축사를, 증경대표회장 오범열 목사와 증경대표회장 김용완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고, 사무총장 남

준희 목사의 인사와 알림, 증경대표회장 안준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신임대표회장 김대성 목사는 "기독교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아직 한국기독교는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전국 각지 전 분야에 퍼져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한국교회에 희망적인 일입니다. 그런 분들과 동역하여 앞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증경대표회장님들과 같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

겠습니다"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김대성목사는 소명중앙교회 담임 목사, 남경산기도원 원장, 연세총동문화 운영회장, 강남공식기도원 주강사, 세계기독교부흥협의회 총재, 행복한목회자들의 모임 총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한 장총부흥사회 대표회장, 경찰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제2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제25대 실행위원 보선을 통해 상임회장에 설동욱 목사, 평

화통일위원장에 한명기 목사를 인준하고, 각분과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국제위원회(위원장 정균양 목사)에서는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와 공동주최로 종교개혁 발생지 순회 포럼,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안준배 목사)에서는 제10회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상 시상식, 인권위원회(위원장 손광호 목사)에서는 제2회 한국교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포럼위원회(위원장 남준희 목사)에서는 2015 한복총포럼에 대한 사업이 승인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했거나 2015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5년 5월 11일(월)~13일(수) 뉴욕장소, 5월 15일(금)~18일(월) 브라질장소
2) 고시 장소: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고시부서기에게 문의바람)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한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창세기 6:1-4
(2) 신약 주해 - 사도행전 9:10-19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임장에서교단의필요성에대하여논하시오
(4) 설교 본문 - 이사야 40:26-31
③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④ 필기고시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필기교사를 치를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5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만 사진 2장
7) 고시료: \$150.0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5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9회 총회기간(5월 19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고시부서기(김영기목사)에게시험기간(11월-13일 2015년뉴욕장소, 15-18일 2015년브라질장소) 중사용할수소를예약할것.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김영기목사 (Rev. Young Kee Kim) / Email : youngkey48@gmail.com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cott City MD 21042. Cell: (443)520-5242
- 8. 기타 문의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 이길호목사(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2) 고시부 서기 : 김영기목사(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3) 고시부 회계 : 허윤준목사(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5.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1(Mon.)-13(Wed.), 2015 (New York); May 15(Fri.)-18(Mon.), 2015 (Brazil Iguazu)
2) Place: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Inquire with the Clerk of the ExaminationCommittee :
-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Genesis 6:1-4
(2) NT Exegesis Text - Acts 9:10-19
(3) Thesis Topic - Discuss the necessity of denominatio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4) Sermon Text - Isaiah 40:26-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all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5.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candidate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appropriate examination dates
(New York: May 11-13, 2015 or Brazil: May 15-18, 2015) through Rev. Young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Young Kee Kim / Addres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cott City MD 21042
Cell : 443-520-5242 E-mail : youngkey48@g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Kil Ho Lee (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oung Kee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

크리스천 리더십 (9)

느헤미야의 리더십(7):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1)(느헤미야 5:1-13)

번역 및 요약: 최운용 목사 (감사한인교회)



오늘날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려 온갖 힘을 쓰는데 외부의 공격보다는 주로 교회안의 내분을 통해서 교회를 더 많이 파괴하고 있다. 내분이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마가복음 3: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열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다”고 말씀한다. 한 교회 안에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서로 싸움을 할 때 그들은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열과 갈등은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려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5장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이 장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배

은 더 많은 빛을 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빛을 갖기 위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했다. 이제 백성들은 서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부자 유대인들은 고난의 시기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득권을 쥘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에 이용하고 있었다. 돈과 양식을 가진 자들은 “만일 너가 나에게 너의 집을 판다면 양식을 주겠다. 돈도 빌려 주겠다. 그러나 이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너가 돈을 갚지 못하면 너의 자녀를 다 함께 가져갈 것이다” 그들은 같은 동포를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는 대신에 그들은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그들의 집을 탈취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비로 삼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는 매우 화를 냈다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그룹의 리더이고 사람들의 화합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의로운 화를 내야 한다. 때로 화가 매우 필요한 때가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분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에베소서 4:26절 “너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의 말씀처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

리더의 첫 번째 일은 먼저 이기주의에 의해 불화가 야기된다면 리더로서 화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어느 개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부자들의 이기심에 화가 났던 것이다. 부자들은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단순히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난 후에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화를 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를 내기 전에 항상 숙고하고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가 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보통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를 내기 전에 리더는 먼저 두 번째 단계를 해야 한다. 야고보서 1:19-20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내기도 천천히 하라”고 말하며,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26절 “너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를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다.

방지일 칼럼 (68)

“본대로 들은 대로”

교통(交通)의 난맥상(亂脈像)

미개발 저개발 어느 땅에 해당하겠는지 모르겠다. 필리핀에 가면 그 자작 만들어진 승용차라 할 지 자전거로 끄는 차나 오토바이에 사람 태우는 버스같이 만든 것에 짐짝같이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본대로 들은 대로로 쓰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왔더니 여기는 공무원의 월급이 30불 정도라니 그 경제는 말한테도 고급 차들이 그리 많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오토바이가 바다의 파도처럼 질주하는데 놀랄만하다. 한 전열을 이루고 있다. 교통의 난맥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삼켜줄같이 되고 만다. 오토바이가 꼭 파도 같이 밀려다니는데 한 오토바이에 5명까지 태우고 제비날 듯 서로 날아다니는데 아슬아슬하게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그래도 빠져들 다니는데 어떤 차는 명하리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사이를 막 파고든다. 교통경찰이 아예 철수하고 만다. 약속한 식당에 우리 일행은 간신히 도착했는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그 앞에 와 있으나 빠져 들어오지 못하기를 거의 한 시간이라고 한다. 부득이 그를 제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니 가운데 우뚝이 그 차는 서 있다.

이런 난맥상은 여기보다 더한 곳이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오토바이들은 요리조리 빠져들 다니고 있다. 모험이리라 보다 생명을 건 전투 행위라 하겠다. 꼭 바다 파도를 타는 것에 비길 수 있겠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모두 우리나라 택시에 해당하는 돈 버는 차들이라 이렇게 해야 몇 푼이라도 더 벌게 되는 모양이라 생명을 건 달음질인 것이다. 승용차 외에 여기 마을버스 격은 삼륜차 뒤에 15-20명 태우는 널판을 깔아 사람 앉게 한 교통수단인데 이것들도 막 달린다. 그리고 오토바이 앞에 사람 앉게 한 택시라 할까 또 앞에 오토바이가 그런 사람 태운 의자 같은 것을 끄는 것 그 다양한 승용물은 필리핀이나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얼고설기는데 오토바이는 무엇이든 그 사이를 끼어들면서 빠져나간다. 아마 오토바이택시 타는 것이 가장 빠른 교통으로 보여진다. 프론트 시내는 난맥상이나 좀 벗어나면 한국의 경기도 같이 좀 덜해 보이기도 했다.

사람 살아가기가 그렇게 복잡할 수가 있을까. 자못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생존경쟁에 남아있게 되는가? 상기하면 인생의 삶의 철학이 떠오르기도 했다.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됐는가. 농경시대에 밭에 씨를 뿌려 거기서 나는 것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 곡에같이 살지는 않았다. 더 낫게 더 잘 살게 더 편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일 수 없다. 농번기엔 눈부시게 일하다가 농한기에 이웃끼리 환담하며 배운 이들이 옛 역사 혹은 소설을 읽어주면 가서 들으면서 역사도 알고 생의 낙을 누렸던 그 때가 훨씬 낫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자기 난 곳을 떠나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 많았다. 오늘 같은 지구촌 여행은 꿈도 못 꾸었기도 했겠다. 그래도 이런 모험 위에 더 큰 모험이 어디 있을까? 곤충계 동물계 생물계 다 그 생존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기도 했다. 만물의 영장 운한 사람도 저 곤충 어벌같이 잡아먹으며 잡아먹으며 살게 된 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다. 민족이 전멸하기도 했다는 역사가 말해주기도 하니 그 양상이 다를 뿐 살벌한 세상이라 그렇게 살아 내려온 것이 인간이라 할 수 있겠다. 교통이 혼잡하면서도 질서를 지키며 산다. 질서 가운데 산다. 교통신호가 있어 파도같이 오고 가도 순조롭게 순로로 그 교통이 물결이 흐름같이 사는 나라도 있다.

천체의 운행 각각 그 별마다 그 길이 있기에 아무 충돌 없이 지평해나감을 본다. 저 수많은 별들도 그 교통질서가 있어 그대로 운행하기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천체의 운행에 난맥상이 된다면 그중 작은 지구는 벌써 깨어졌을 것이다. 그 위에 우글거리고 사는 인간들도 하루살이 같이 잠시시간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천체의 질서를 살려주고 있으니 창조주의 그 섭리하심을 어찌 무시하라.

(2007년, 28권)

이기주의에 의한 화합이 위협 받으면 의로운 화를 내야

하나님의 분노는 의에 목적... 인간 분노는 대부분 복수심

을 것이다. 1-5절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6-13절은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I. 갈등의 원인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시간을 들어 성벽을 쌓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위해 농사를 지을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이제 남자와 그들의 아내들은 그들의 유대 형제들에게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곡식을 얻어야 합니다”(1절). 첫 번째 불평은 양식 부족이었다.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부족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자원과 식품들이 매우 부족했다. 인플레이션과 가격인상, 양식부족이 문제였다.

두 번째의 문제는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저당 잡히고 있었다. 3절에, “우리는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기근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저당 잡혔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들의 집의 소유권을 저당 잡힌 것이다.

세 번째의 문제는, “우리는 농토와 포도밭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4절)라고 말한다. 높은 세금이 문제였다. 그들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 따라서 백성들

이었다.

출애굽기 2:25절에는 유대인들이 서로에 대해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은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씀한다. 만일 누군가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를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는 안된다. 부자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범하고 있었다. 이익을 내고 이용하고 기근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성벽 건축 과정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II. 갈등의 치유

그렇다면 리더는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가? 느헤미야는 이런 갈등과 분열이 성벽공사를 망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이런 내분이 밖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란 것을 알았다. 밖에 있는 적들이 종종 군대를 모아 공격하면, 내부의 사람들은 연합이 잘된다. 그러나 내부의 사람이 서로 싸울 때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느헤미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아보자.

1단계: 의로운 분노를 내라

인해 전체 성벽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느헤미야는 “만일 성벽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착취를 한다면 성벽을 세운 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생각했다. 그의 분노는 정당한 분개였다.

리더십 포인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이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잘못된 일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도덕심이 후퇴되는 현상이다. 누군가 교회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들을 본다면 리더로서 해야 할 첫 번째의 일은 분노하는 것이다. 분열만큼 리더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2단계: 먼저 생각하라

만일 리더가 1단계만 하고 2단계 계를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5장 7절에서 “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한다. 현대어 성경은 “그 것에 대해 생각한 후에 나는 이 부자관원들에게 말을 했다”고 번역한다. 이들은 사람들을 등쳐먹는 인간들이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화를 내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 생각했다. 그는 계획을 하고 화를 냈다는 것에 주목하라.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와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복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가임)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선교 편지

파푸아뉴기니

카이루쿠 사역 소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점점 적도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어, 한 차례씩 쏟아지는 소나기를 기다리는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의 태양이 뜨거워지면 고국에는 겨울이 찾아오겠구나 싶어서, 동시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음이 실감나게 됩니다. 지난번 소식 이후 여러 가지 행사들과 사역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역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와이마 부족마을에서는 지난 7월 19일, "와이마 성경의 날"에는 특별히 그동안 녹음해온 '와이마 오디오 성경'(듣는성경)을 봉헌하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동역해 온 한국 O.O교회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여 함께 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는 이들의 모습,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암송하는 사람들, 저희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8월 25-29일에는 중부지역의 성경번역지도자들이 모여 수련회와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15개의 부족에서 온

35명의 번역지도자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며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세 단체(BTA:파푸아뉴기니 성경번역회, 성서공회, 그리고 저희 SIL 선교회)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6일 다시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고 지난 모임이후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역 한 지역의 마을지도자가 내년에는 자기들의 마을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모두 감사하였습니다. 내년 2월 6일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동남부지역대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여명의 선교사들을 만나서, 또는 이메일로, 전화로 돕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현지인 번역단체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쌓고 의견을 나누며 격려하는 일을 통해 이 나라 교회와 지도자들이 점점 더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카이루쿠지역(와이마, 나라, 가바디) 부족형제들은 각 마을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또 개인적으로는 질병과도

씨름하며 훈련과 번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나라부족의 번역자 알리는 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와이마 부족의 이구뿌는 고혈압과 목에 혹이 생겨서 모두 놀랐으나 둘 다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7개월이 채 되지 않고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그냥 아기를 부족마을로 보내서 저희모두를 긴장시켰던 가바디 부족의 모래의 딸, 그후 곧 큰딸이



마루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모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

12월 9일부터 나라부족의 마가복음을 자문점검 받게 됩니다.

자문위원(가두 마가: BTA 자문위원)과 번역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중으로 연기된 와이마, 나라부족의 창세기와 마가복음도 점검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

을 드렸느니라"(히11:17).

저물어가는 한해를 돌아보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일어서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팔을 벌려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동역자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받은 약속을 굳게 붙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남은 몇 주간의 율해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주님 사랑 안에서 축복하며,
김남수, 이덕신 올림.

감사, 기도 제목

1. 계속 진행되는 자문위원훈련을 받으며 사역하고 있는 우꼬형제(7월, 10월-11월 히브리어 과정)가 신실하게 감당케 하심에 감사. 그리고 알리, 이구뿌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

2. 12월 9일부터 시작되는 '나라'족의 마가복음 자문점검을 위해, 그리고 1, 2월중에 받게 되는 '와이마부족, 가바디부족'의 창세기, 마가복음 마무리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도우라' 부족의 사역이 시작되도록.

3. 중부지역팀 수련회(8월 25-29일)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 15부족의 중부팀 번역지도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도록, 세 선교단체의 연합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4. 저희부부가 카이루쿠 사역을 병행하며 12월, 1월, 계속해서 동남부 지역 사역자들을 만나서 율해 사역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는 일을 돕게 되는데 지혜와 강건함으로 감당하도록.

5. 자녀들: 하와이 코나에서 사역중인 딸 히란(데릭 목사, 드림, 모아, 나누미)이 가정과 V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딸 하나(바울선교사, 보라, 다윗)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duckshinkim@gmail.com

(2면에서 계속)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불화협상 시 한쪽 당사자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쟁점이나 요구)이 옹포나 허세처럼 여겨진다면, 누구나 거침없이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다. 미국이 우방국들에 지키기로 한 약속이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방국들은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미국의 위협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적들은 대담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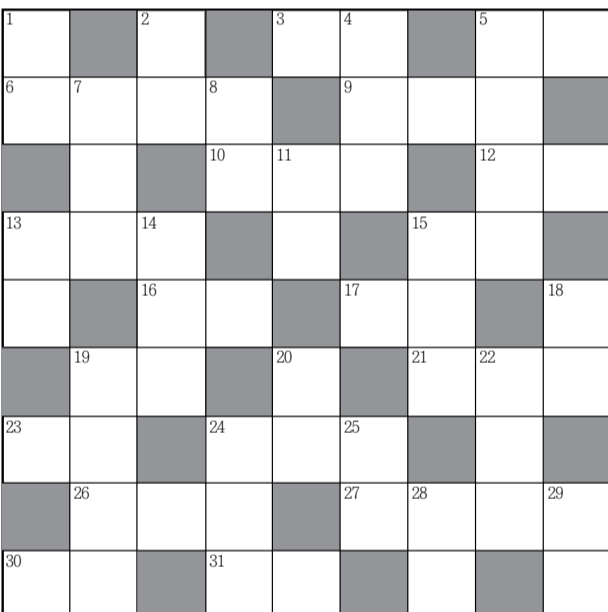
요컨대 세계를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불량국가들이 서로 단결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다. 1930년대와 흡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경제는 혼란스럽고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높으며 서구는 자기 회의에 빠지고 미국은 자국의 일에 열중하는 사이 야심만만한 독재자들이 부상하면서 세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영국총리에 제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처칠 총리는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답했다. 이런 실수가 역사에서 또다시 반복되지는 안 된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어 한다고 해서 미국의 방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설교가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설교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각을 바꿔놓는 일을 한다. 경찰은 묵묵히 순찰을 돌면서 선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틀만 나면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단념시키며 사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지만 하면 된다.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꿈이 경찰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이 없는 동네에 누구인들 살고 싶을까? 당신이라면 살고 싶겠는가?

십자말 • Cross Word (6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3. 잘못됨이 없음. 성경말씀이 O.O한 진리요...(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 잘못이나 허물(창37:2).
6. O.O.O.O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찬송가188장).
9.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는 신분의 부찰(사3:20).
10. 에브라임 아들로 조상이 된다(민26:35).
12. 오래 두고 정답게 사귀어 온 벗(창26:26).
13. 장사(葬事)하여 묻을 땅(창23:4).
15. 몸이 여위어서 강파름(시6:2).
16.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마3:16).
17. 지붕의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왕상7:9).
19.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건(레25:19).
21. 헬라인에게는 데베스라고 알려져 있는 애굽의 도시(나3:8).
23. 쓸데없는 비용을 씀(마26:8).
24.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동시에 또한 가나안7족 중의 한 족속의 이름도 된다(창15:21).
26. 둘러싸이다(창23:17).
27. 엘리데모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하는 것을 바울이 고쳐주었다(행28:7-8).
30. 진흙으로 만들어 찻물을 올리지 않고 구운 그릇(레6:28).
31. 가닭 없이 트집을 부리고 마구 떠들어대는 짓(삼상18:10).

<세로 푸는 열쇠>

1. 제 스스로가 잘난 체 하며 겸손하지 않고 뽐내어 방자함(출18:11).
2.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함(삼하15:31).
4. 슬프다. 애달프다(삼하1:19).
5. 홀로 된 여자 친척(딤후5:16).
7. 세무행정제 중사하는 관리의 우두머리(눅19:2).
8. 돌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삼하5:11).
11. 유대 남쪽에 있던 성(수15:24).
13. 매나 방망이로 때리는 일(막13:9).
14. 지극히 거룩한 물건(출30:29).
15. 광택이 아름다운 석영의 하나(욘28:16).
18. 요단강 동편 모양의 북편인데 그 수부는 랍바(삼하11:1).
19. 비둘기과에 속한 새. 전신은 담회색, 머리, 목, 배는 회백색(창15:9).
20. 물고기를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욘41:6).
22. 이 민족을 가리켜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고 했다(암2:9).
24. 다윗왕 당시에 제사장 반열 중 제2반의 수령(대상9:10).
25. 소밭의 자녀(창36:23).
28. 다윗의 용사 헬레스의 출신지(대상11:27).
29. 유다의 처남. 그 형 열이 죽은 후에 그의 처다말을 취해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일을 거부하므로 여호와에서 그를 죽이셨다(창38:1-10).

십자말 정답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75)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교회 신학교 교수)

사실은 현재도 한인교회들이 우리 한인 가정의 노인 및 독거가정의 노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예배나 각종 공예배 참석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차량봉사는 꽤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차량이 없거나 운전이 용이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가지 힘든 어르신들에게 예배의 기회들을 제공하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버스나 봉사자의 차량을 함께 타고 함께 교회를 오가는 노인들 간에 자연스런 친우관계와 상호간 지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노인들의 영적,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사역이며, 자원봉사자들과 부교역자들의 노고에 모두 함께 감사해

삶의 주체이며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약한 존재, 이미 저물어버린 존재, 그래서 이제는 주인공으로 활약하던 무대에서 내려와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보아도 노인들은 지혜로운 존재로 삶의 경험으로 통찰력이 있는 존재로서, 젊은이들이 그에 힘입어 슬기롭게 삶의 문제들을 대처할 만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 살아온 삶을 인하여 마땅히 공경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과 함께 한 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에게 먼저 노인들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개선하고 올바른 상을 갖도록 교육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인 1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실히 보이는 짜여진 교육과정(explícit curriculum)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외에도, 사실 노인들을 지혜의 보고로 인정하고 섬기는 교회의 분위기 및 지체들 속에 노인들이 존재하고 어울려 있는 것으로도, 소위 감춰진 교과과정으로서(hidden/implicit curriculum), 자녀들에게 효과와 공경에 대한 산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다음세대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자기 가치를 고취되고, 공헌감을 느끼며, 존재감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러한 여유로움이 외로움과 허무감이 극복되는 귀한 계기 도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생활교육 사

노인들 경험과 은사, 교회교육 활동 투입... 존재감 갖도록 생활 교육 서비스 제공/안내... 지역 교회/단체와 협력 가능

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꾸준히 예배 이외의 부분에서도 그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고 교육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 또한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에서 더 나아가 한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두려움, 허무감, 좌절감, 무력감, 그리고 무가치감 등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막는 요인들을, 보다 깊게 터치하는 것이 한인교회와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실천할 다양한 방법들을 각 교회 상황에 맞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며, 오늘 이야기에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노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교육에 앞서 그들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우선은 어르신들의 심리 및 정서 상태와 그들에게 무엇이 이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립잡아 접착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배려와 섬김이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그들도 아직 그들의

이 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시리즈 세미나를 해도 좋을 것이고, 구역모임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현재적 실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을 일굴 수 있도록 자료들을 생산 제공하는 일도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형식이 있는 교육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활력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또한 교회 내 지체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전체적인 회중의 분위기와 교회적 환경을 일구어가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로, 그리고 쌓아온 경험들과 은사들로 교회 각처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에서의 사회적 삶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일을 통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전체가 어르신들을 교회의 교육적 자산으로 포착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교회교육 활동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노인들을 한인교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국학교와 같은 다음세대를 위한 전통 교육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서예 및 전통음악과 같은 전통적 문화와 상호협업 및 협동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비스들을 제공하거나 혹은 안내해 드리는 일입니다. 노인대학 등의 형식이 빌어 실질적으로 필요로 생활적 기술들인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법, 스마트폰, 혹은 SNS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영어교육, 다양한 여가활동 안내, 그리고 건강강좌 등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부양자 서비스, 노인부양해택, 임시간호, 그리고 푸드 스탬프 등과 같은 유용한 미국의 사회보장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개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확실히 무리인 듯 보입니다. 같은 지역내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역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것조차 힘겨울시에는 한인회 혹은 가정문제연구소 등의 다양한 외부조직들과 연계하거나 교육위탁을 하는 것도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정보에서 소외되어있는 어르신들에게 한인교회가 그들을 위한 생활교육의 넥스트가 되어주는 것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테니 말합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시21:8-13)

우리의 감사는 시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주시고 앞서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마다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더 나아가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후에 깊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속속들이 밝혀서 손을 보셨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볼 때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원수까지 동정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손은 모든 원수를 발견하셔서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주님이 노하시 때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시22:1)

시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마치 십자가상에서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에 가까이 나아수록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극한 상황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 고통 속에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울부짖는 외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려져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 속에는 "내 하나님!"이라는 부르짖음이 세 번 나오는데 고통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는 울부짖는 외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려져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 속에는 "내 하나님!"이라는 부르짖음이 세 번 나오는데 고통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수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시22:1-2)

2절, 밤낮으로 부르짖고 잠잠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잠잠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지라도 계속해서 잠잠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서는 극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였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한낮에 칠홍같이 어두웠습니다. 이때 번개같이 어두움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극한 상황속에서도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니 주의!(시22:2-3)

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있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이라는 접속사가 끼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

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찬송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분이니까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시22:4-5)

우리가 끝까지 용기를 내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저희가 주께 부르짖어...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한다면 의뢰함의 역사요 부르짖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의상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압박강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 응답

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여기에서 "건지셨다"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나와있는데 원문에 보면 피엘 미완료형으로 즉 그전에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막아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토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시22:6-10)

너무도 생생하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된 시22편은 우리 마음을 더욱 경건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벌레 같이 취급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훼방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할

비웃음과 멸시를 대신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하신 사랑까지도 비웃으면서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잔인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다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52-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Tel. (82)1397-9419, Fax. (82)2-436-5770 서울시 금정구 영등포동 870-1(131-231)</p>	<p>금란교회</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광주신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기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2)523-9419, Fax. (82)522-4834 500-170 경기도 성남시 북부 군마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p> <p>담임목사: 이강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p> <p>Tel. (82)2-2643-8553-5, Fax. (82)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장향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p> <p>Tel. (82)1977-8383-9, Fax. (82)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평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교육부)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p> <p>담임목사: 김삼환</p> <p>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 7:20 (4회)</p> <p>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p>	<p>새에덴교회</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 휴무, 헌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p> <p>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8)</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9927-1008 서울시 강동구 수유동 321-49 (142-073)</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김정곤</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쉽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영교회</p> <p>담임목사: 이규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p> <p>Tel. (82)1740-4500, 4556-8, Fax. 740-450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등교회</p>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저녁 7:00</p> <p>Tel. (82)732-2341-3, 사택(8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p>	<p>시온교회</p> <p>담임목사: 김성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p> <p>Tel. (82)1253-1004, Fax. (82)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서신구 인왕로 419-2</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신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Tel. (82)2-842-1968, 사택(82)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p> <p>담임목사: 송용결</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82)418-0491, Fax. (8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로 1712 291(강일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이정익</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조 윤</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전 8: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82)5210-5500, Fax. (82)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okg.org</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기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p> <p>Tel. (82)842-6881, Fax. (8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8: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주일6부예배: 오후 2:00 주일7부예배: 오후 4:00 주일8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p> <p>담임목사: 주서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82)275-9191, Fax. (82)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p> <p>담임목사: 이진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Territory Ministries 첫 번째 사역 “청년연합동계수련회”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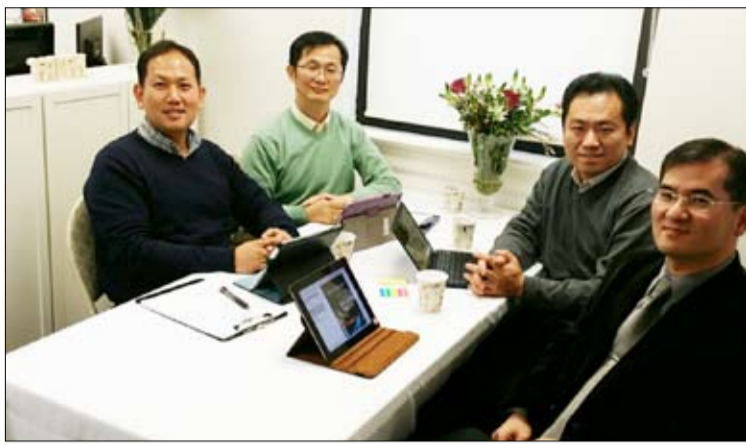
2015년 1월 18-20일, “네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주제

테리토리 미니스트리(Territory Ministries, 이하 TM)가 첫 번째 사역으로 2015년 1월 “청년연합동계수련회”를 갖는다.

“네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주제로 1월 18일(주)부터 20일(화)까지, 장소는 뉴욕업스테이트에 있는 아널스 헤븐 리조트(HONOR'S HAVEN RESORT & SPA, 1195 Arrowhead Road, Ellenville).

TM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삶의 분야와 영역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5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시작됐다.

문정웅 목사(퀸스함께세우는교회 담임),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장로교회 담임), 이성민 목사(은세대교회 담임), 이철희 목사



오른쪽부터 유태웅 목사, 주영광 목사, 이철희 목사, 이성민 목사.

전의 반복적인 역사로 채워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사탄의 영향력은 끝내 패배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자신의 영향력(영역/지경)을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문화 속에 침투해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무가치한

도모임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주 목사는 “청년들의 공통적 필요인 직업과 결혼도 도우며 정기적인 목회자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사역과제들을 공유할 것이며, 그 외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청년사역 비전 가진 5명 목회자 힘 모아

(농아인교회 담임), 주영광 목사(뉴욕한민교회 담임)(가나다순) 등은 연합사역의 긍정적인 시너지 지분 아니라 부작용도 잘 알고 그 고민을 나누는 중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첫 청년연합수련회를 계획하게 됐다.

“테라토리 미니스트리”는 이민 목회현장에서 청년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세운 사역그룹”이라고 유태웅 목사는 설명했다.

유 목사는 “이민청년목회현장이 열약하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선택 목회자 홀로 쉽게 나설 수 없는 현실에 도전해 젊은 목회자들이 한 뜻으로 모이게 됐다”며,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HOW)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혼자 아닌 함께 고민하며 도전을 하게 된 목회자연합사역”임을 강조했다.

TM은 이민목회현장의 작은 규모 교회들의 청년사역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들로 구성하고 있다.

“테리토리는 일반적이라 경”이라 번역되며 그 의미는 군대의 점령지나 어떠한 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창조 이후 인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영향력과 사탄의 끊임없는 도

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력(영역/지경)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만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는 다양한 지경(정치, 경제, 과학 기술, 종교, 가정, 교육, 미디어, 예술)으로 확대되어 개인과 가정, 민족, 그리고 열방에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TM은 교회연합을 통해 이러한 영적 영향력의 현장을 해석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지경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지경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이성민 목사는 “여기서 ‘지경’이란 개인이 가진 재능과 생업, 그리고 비전에 따른 삶의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그 지경의 한계는 없으며, 각각의 지경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해석된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M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주영광 목사는 “TM의 주 사역 대상은 미주 동부 이민청년세대와 유학생이며, 그 지경 역시 모든 세대로 확장할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인 청년연합집회를 가지며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 조철의 밤, 각 영역(지경)별 연합기

발했다. 이번 “청년연합동계수련회”의 강사는 문정웅 목사, 문희석 목사, 유태웅 목사, 이성민 목사, 이철희 목사, 주영광 목사이며 스페셜 강사로 김진수(그레이스자선재단 대표, 코스타 강사), 송솔나무(드라마 허준, 이산, 동이 드라마 OST 연주자, ‘하나님의 대사’ 저자), 정승진(전 민권센터 대표), 정정숙(매일리터치 대표), 하용화(전 뉴욕한인회 회장, 솔로몬 보험 대표) 등이 초청된다.

수련회는 2회의 저녁집회와 2회의 오전집회, 2회의 새벽집회 등 총 6회의 전체 집회와 첫날 저녁집회 후에는 리조트 내 실내체육관에서 공동체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또 5명의 스페셜 강사의 강의와 송솔나무 선교사의 시금과 플룻 연주, 소그룹 나눔의 시간, 각 교회 담임목사와 및 부장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등록비는 12월 21일까지 180달러, 내년 1월 11일까지는 200달러이며 당일 등록하면 220달러를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facebook.com/territoryusa, 이메일: territoryusa@gmail.com 전화 (917)991-0703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한국인의 건강 관리법 (3)



김광은 장로 (척추병원 원장)

급한 성격 후유증

194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수명은 중국, 일본보다 짧았다. 중국에서는 환갑잔치라는 것을 몰랐다. 일본도 환갑이라고 60세가 되면 자그마한 선물을 가족이만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국인은 60세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다가 60세(환갑)만 살아도 동리가 떠들썩하게 환갑잔치를 베풀어 장수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물론 현재는 수명이 평균 70세가 넘는 시점에서 아직도 건강관리에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 있기에 열거해 보려고 한다.

첫째, 한국인의 성격은 너무 급하다.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는 다혈질 체질이 많다. 그런 분은 자기의 건강관리에 소홀하다. 예로 든다면 혈압약이나 당뇨 약,

혹은 콜레스테롤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비만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던 사업이 잘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짧은 시일 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업도 망하고 급한 성격의 후유증으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유명 사업가 록펠러는 42년의 긴 세월을 한 사업에 꾸준히 노력과 정성을 드려 성공의 공을 세웠고 92세의 삶을 신앙인으로 많은 미국과 전 세계의 사업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둘째, 한국인은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분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분을 직접 초대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경청하려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은 그분보다 나 자신의 건강관리를 더 잘해 보겠다고 비싼 보약이나 사서 복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건강관리를 무시하려고 한다.

건강관리의 비결은 없다.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배워야 하고 유전적 체질을 잘 이해하고 의료인의 건강관리교육을 잘 습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실천해야만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제 3자가 건강하고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잘하고 있다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건강관리법을 전문인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하는 길만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락처: (323)468-1001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 모세오경

타락(墮落 The Fall of Man) (창세기 3:1-5:32)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신혼(新婚)의 꿈 자락 피기도 전 뱀의 독침에 넘어진 아훼의 분신이며! 놀랐어라 놀았어라 크게 놀았어라

검푸른 물결 뱀도는 만물이 고개 숙인 에덴의 서편

이브와 아담 불순종으로 선악과 삼키고 수치심 두려움 혈어진 들창에 찬바람 일었네

그들 회개 않고 그 책임 아훼께 돌리니 산고의 고통과 땅의 저주 가시덤불 엉켜키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회전문목(回轉木)에 걸터앉아 나뭇잎 치마 두른 모습들 측은하여라 가쪽웃 손에 든 님의 뜨거운 손길 거룩 거룩 거룩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영원히 죄의 몸으로 사나니 에덴 추방 선포하신 아훼 마음 갈기갈기 찢기어라

아담과 이브 가인 아벨 낳아 기뻐하던 일순간(一瞬間) 가인 아벨 쳐 죽이니 가정, 제사 산산이 부서지고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힘 잃은 아훼께 “내가 아우 지키는 자이니까?” 님 가슴에 큰 못 박았네

아들 죽은 텅 빈 가슴 움켜쥐고 한 세월 지나다가 아담 이브 셋 낳아 품에 안고 새 자장가로 마음 달래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른 아훼 말씀 이루어져 풍진 세상에 아담 이브 가인 자녀를 낳아 세상에 씨 뿌리었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맨발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장이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상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스택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탄의 고백서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신을 정복하라 268면 / 11,000원